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윤회전생(輪廻轉生)을 주제로한 드라마 소설 의학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생(前生)을 다룬 창작물 연구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회전생이 방송 출판 등 대중매체를 통해 회자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불교 사상체계의 근간인 인과 윤회를 자연스레 알리게 마련이다. 이처럼 인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전생과 내생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생을 소중히 여기고 인과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전생의 일을 묻는가

과거세에 번뇌로 말미암은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조건이 결합되어 씨에서 싹이 트는 것과 같다. 〈대장엄경론〉

이 몸과 마음이 갖가지 악을 지으므로, 이 인연으로 하여 생사를 유전해 삼악도에 떨어져 여러 고통을 골고루 받게 되는 것이다. 〈열반경〉

무명에 이끌려 수양을 쌓은 사람들을 과룹하는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모태에서 다른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숫타니파타〉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숫타니파타〉

소를 잡던 백정이 훗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지 못했느니라. 산 목숨을 잡는 백정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없느니라. 만약 백정으로서 부귀를 누린다면 그것은 전생의 덕일 뿐이지 금생의 복은 아니다. 〈증일아함경〉

너희 비구들아, 전생에 관한 일들을 말하지 말라. 그러한 말들은 이치에 도움도 되지 않고, 법에 보탬도 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어서 열반으로 향하는 데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잡아함경〉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은 과거의 업력이 가식된 현상이며 이를 시사(時死)라 부르고, 의식주가 없어졌거나 명예와 복력이 다 되고 불행이 겹쳐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한 것을 비시사(非時死)라고 한다. 〈유가론기〉

전생의 일을 묻는가, 금생의 바로 이 모습. 내생의 일을 묻는가, 금생에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불설삼세인과경〉

관련기사 8 · 9면

불교인구 10,387,861명

94년 대비 2%증가 … 남성불자 늘어

15세이상 불교 26.3% · 개신교 19.4% · 가톨릭 6.8%

'95 인구 총조사 2% 표본집계

전반적으로 종교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불교인구는 지난 94년 조사때보다 약 2%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불교포교에 밝은 전망을 비쳐주고 있다.

통계청(청장 정재룡)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1995 인구주택 총조사'의 연령및 성별 종교인구조사 2% 표본추출 집계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총 4천4백55만1천1백83명 가운데 종교인구는 51.1%인 2천2백77만7천8백5명이고 이중 불교인은 1천38만7천8백61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해 여전히 우리나라 제1의 종교로서의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본추출집계이므로 오차 약간 있음).

이중 15세이상 불교인구는 약 8백99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6.3%를 차지해 지난 94년 발표된 통계청 종교인구조사(15세이상)때의 24.4%보다 약 1.9%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불교인구는 지난 85년조사 23.7%→ 91년조사 27.7%→ 94년 24.4%→ 95년 26.3% 로, 중간에 약간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증가되는 반가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불교다음으로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개신교(15세이상)도 95년 현재 6백1십여만명(19.4%)으로 94년 조사 18.2%보다 1.2% 늘었다.

가톨릭신도(15세이상)는 2백33만여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 신도수로는 세번째 종교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94년조사 5.9%보다 0.9% 늘어났다.

어린이 · 청소년 종교인구(19세이하)만을 살펴보면 불교인은 2백13만3천여명으로, 개신교 3백1만8천여명, 가톨릭 92만4천여명 등을 합한 숫자에 비하면 절대숫자상으로도 1백80만명 이상 적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한편 50대이상 불교인은 전체 불교인구의 26.8%를 차지해 개신교(15.7%) 가톨릭(18%)보다 노령층의 두터움도 여전하다. 또한 여자신도비율은 94년 조사때의 28.2%에 비해 3.4% 줄어든 24.8%인데 반해 남자신도는 20.3%에서 1.6%늘어난 21.9%를 차지해 불교의 또하나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사들에 대한 포교전망도 점점 밝아지고 있는 반가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다시 태어난 신라 佛心

◇지난 6일 재봉안된 나원리 석탑사리함 뚜껑 윗면과 사리함 사방 측면에는 발견당시와 똑같이 연화당초문(蓮華唐草文)과 사천왕상을 새겨 넣었으며(사진 좌), 사리병과 뚜껑 · 받침은 옥과 순금을 세금해 조성했다.

불교대학 설립신청 2곳뿐

62개교중 종교계 27곳…인재불사 대책 시급

지난 7월 대학설립기준을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발표된 뒤 불교계에서는 단 2곳만이 대학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8월31일 대학설립신청을 마감한 교육부는 모두 62단체 및 개인이 입학정원 1백명 안팎의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한 가운데 종교계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불교는 단 2개교만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신교에서 종교대학으로 대학 6개, 대학원대학 9개를 신청한 것에 비해 불교계는 태고학원의 '동방불교대학교'와 보문학원의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부처님 참배

조계종 중진스님 10여명

조계종 종회의원 및 집행부 스님등 중진스님 10여명은 지난 6일 오후2시 청와대에 있는 부처님을 참배, 공양물을 올리고 반야심경 독송과 축원을했다.

본 사 사 령
이근후
위촉 논설위원
〈1996년 9월 1일자〉
천미희
명 부산주재 기자
〈1996년 8월 12일자〉

창간 2주년 3대기획

불교권익을 위한 대변지로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는 불자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오는 10월 15일 창간 2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는 정론직필의 불교언론으로 사명을 다하고 신행포교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며 창간 2주년 기념 3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획 I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은 115곳의 절터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이 있는 산 전체가 곧 장엄한 법당입니다. 민족의 성지 남산 순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구 부산지역의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역사와 신심의 향취를 흠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1996년 10월 3일(목) 오전10시
△주관:현대불교 부산지사 · 대구지사
△안내 현장강의:경주남산사랑모임(김억수 · 김구석씨)
△참가대상:초중고교 학생과 부모, 대구 부산지역 각 100명 선착순
△순례코스:삼릉골-마애육각불-상사바위-금오봉-용장사터-용장골(슬라이드 상영 및 남산 특강)
△참가비:1인 1만5천원
△준비물:도시락
△접수:현대불교 부산지사(051 -634-5114) 대구지사(053-768-8008)

기획 II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 · 조향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튿날 선종 본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일시:1996년10월26일(토, 음력 9월 보름)~27일(일)(1박 2일)
△일정
26일: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철야정진도 가능)
27일:수덕사-방장 원담스님 친견 (주지 법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참가비:1인 4만원

기획 III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불교를 신행하면서 겪은 감동적인 신행담을 공모합니다. 혼자 가슴에 간직해온 소중한 체험을 이번 인연으로 회향하십시요. 여러분의 신행수기는 불자들의 바른 신행에 도움이되고 신심을 북돋을 것입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참가대상:불자면 누구나 가능
△원고마감:1996년 11월 25일
△당선작 발표:1997년 신년호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접수: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기공모담당자 〈전화 (02) 722-4162 팩스 (02) 737-0698〉

호진스님에게 듣는 불교전생관 8 · 9면
'1본사 1사회복지시설' 필요 15면
불교출판정보 전산화 시급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3-1550-3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자유인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일의 시급성은 불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외부와 문을 닫고 사는 불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불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강조해 오신 대행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는 이번 큰법회는 우리 모두에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합장

고라는것,
그것은 결코 피할 대상도,
싫다거나 좋다거나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묵연히 수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놓고,
가면 가는대로놓는 중에 그
것이 마음 바탕과
둘이아닌
이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때 고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주제 :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 일시 : 불기2540년 9월 15일 오후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문화체육부, 서울특별시, 전국비구니회, 군불교진흥회, 파라미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회프로그램 안내
1. 식전 행사(13시 20분~14시)
: 비디오상영 · 어린이 풍물패 공연 · 내외빈 입장
2. 법 회 : 「한마음의 인생 살이에는 고(苦)가 없다」
3. 특별공연 : 연주-국립국악 관현악단(지휘 박범훈) · 창-김성녀 · 합창-한마음선원 합창단

교통수단
전철 : 2호선 성내역 하차 ~ 일반 버스 : 212, 성내역에서 셔틀 버스 운행 예정
5호선 올림픽역 하차(2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천행 승차)
버스 : 남4문 평화의 문 ~ 일반 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 30 / 남2문 ~ 일반버스 : 21-2, 813-2 좌석버스: 41 / 동2문 ~ 일반버스 : 21-2, 67, 813-2 좌석버스:41

대한불교 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禪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0343)72-3100 · 1512

사 설

해인골프장 '나라 망신'

나날이 숲이 사라지고 물이 오염되고 있다. 카메라가 잡아주는 그 끔찍한 광경에 잠시 눈쌀을 찌푸릴 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심각성에 대해 별다른 주의나 각성이 없는 듯하다. 제집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라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내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동네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이를데 없다.

현실의 인간에게 불성은 갇혀 있다. 여래는 잠재된 씨앗일 뿐, 현재태는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는 비(悲)는 깨인 자에게만 허용된 고귀한 덕목인지. 이즈음 이런 상념이 부쩍 더하다. 참으로 오탁악세, 말법의 괴란(壞亂)이 난만한 세상이다.

가야산에 골프장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좁은 땅에 골프장은 부족하고, 회원권이라도 있어야 가진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으니 골프장 건설은 땅짚고 헤엄치는 돈벌이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나의 행위를 개인적 이해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복지와 질서라는 보편적 척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윤리란 개인의 전체에 대한 배려요 협력이다. 그것이 한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화되어 있느냐의 궁극적 척도이다.

가야산은 남다른 산이다. 산에도 품격이 있고, 개성이 있다. 보통 산을 깎아서도 안되는데 하물며 가야산이랴. 눈먼 개발자들은 3.5㎞나 떨어져 있으니 별무상관 아니냐고 우긴다.

생명은 구획되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에는 국경이 없다. 최근의 시화호는 적어도 수백킬로미터에 걸친 생태계를 오염시켰다. 대부도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고, 물고기는 반 이상이 기형이었다. 화엄의 소식에 따르면, 한 계기의 영향은 백터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저쪽 반대편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실재의 참모습이다. 중국의 호랑나비 한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해안에 허리케인 태풍을 몰고 오는 법이다.

실상이 이러하거늘, 민족의 성지 코앞에다 죽음의 골프장을 세우겠다니. 팔만대장경이 살아 숨쉬는 가야산은 우리 민족의 유산만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 피워올린 빛나는 광휘요, 그런 점에서 전 인류의 유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이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던가.

해인총림과 환경단체들이 주도가 되어 이 패악을 결사저지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벌써 48만 여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관계 요로에 절박한 사정을 진정하고 시민단체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유네스코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특별관리를 부탁하려 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신한국은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을 권고형식으로라지만 사실상 금지했다. 그것은 한국의 실정에서 골프장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근원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막을 생각은 않는가.

유네스코에 재해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요청은 선진국을 코앞에 둔 일인당 GNP 만불시대의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그 수모를 무릅쓰기 전에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란 그렇게 쓰라고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민족의 성지이자 세계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열린마당

팔만대장경 보존

골프장의 잔디에 살포될 연간 7.5t의 농약은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판전에도 영향을 미쳐 곤충 개체수의 증감, 내성을 획득한 공충 및 미생물의 발생 등으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고려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기초학술 연구'를 통해 골프장이 대장경판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이와함께 유네스코 본부에 대장경의 보존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낼 예정인 해인총림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태녕박사 논문요지 미생물·곤충번식 예방 화학약품 사용 금물



이 태 녕
〈서울대 명예교수〉

경판의 변형을 방지하고 칠층(漆層)의 박리(剝離)를 피함으로써 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습한 환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 오염이나 유해 곤충에게 침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보존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해인사의 입지환경은 인접지대에 비해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철에는 선선하다. 또한 습도에 있어서도 사계절을 통해 주위에 비해 높은 상대습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도 높은 상대습도가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미시적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은 큰 특징이다.

온도와 습도의 완충작용은 경판, 판가, 건물들에 의한 수분의 흡수와 방출에 따른 습기조절 능력과 이에 수반하는 열에너지의 발산, 흡수에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특히 판가에 조밀하게 수직으로 배열된 경판은, 그 경판보다 약간 넓은 폭을 가진 마구리로 인하여 경판과 경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여 일종의 굴뚝작용을 함에 따라 상승 통기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작용은 항온 항습에 가까운 완충 조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이 경판 보존의 요체로 사료된다.

박물관에서는 입관 당시와 필요시 간헐적으로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공간의 경우는 간헐적 방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는 마치 농약없이는 안되는 농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경판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빈번한 약제 사용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간섭하여 살균 소독약에 대한 저항력을 획득한 미생물, 곤충의 천적없는 창궐에 이어져 예기치 않은 미생물, 곤충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92년도에 대규모 훈증(薰蒸) 소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간판전에 94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했던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생물 및 곤충 오염 번식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인총림대책위 입장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 산
〈해인총림대책위원〉

해인사 산너머 능성이에 '해인'이란 이름의 '해인골프장' 48만평이 건설된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삼세인과경〉 속의 부처님말씀을 떠올렸다.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 되어 말법시대에 이를수록 다음의 네가지 현상이 두드러지나니, 첫째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자꾸 멀어짐이요, 둘째는 '부처'란 이름의 깨달았다는 이가 많음이요, 셋째는 생명경시가 만연함으로 방생을 해야 함이요, 넷째는 말세중생은 복이 엷으므로 큰 수행자를 공양하며 복을 지어야 한다"고….

48만평의 골프장과 150만평의 위락시설이 등장한다면, 더 이상 해인사는 수도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상실한다. '가야산 해인사'는 '가야산 해인골프장'이란 이름으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드넓은 가야산 산허리의 숱한 자연생명체가 포크레인 삽날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간 7.5t의 농약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생물오염 등의 결과를 낳게 된다. 골프장이 한번 건설되면 그 이전 상태로의 자연복구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골프장 건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을 준수할 의향이 없다면, 차라리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유네스코 본부에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협약에는 관광개발에 의한 공사의 금지를 포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보호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의 강구를 권고하고 있다.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 일괄표'에 포함시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인총림대책위원회가 유네스코 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한 것은 팔만대장경이 우리 불교도의 성보임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선조들의 것도, 우리들의 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문화유산에 담긴 정신과 지혜를 우리들의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혜택과 함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존의 권리만이 있을 뿐이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권고(1968년 제정)

▲2조3항: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들은 그 국가의 전체 영토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어떤 기념물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2조7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위한 기준들은 예방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2조8항: 예방적이고 정확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손상하고 파괴하는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조8항d: 유적지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들 혹은 일련의 구조물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의 건설이나 변형.

▲2조8항g: 깊은 쟁기질, 배수와 관개작업, 땅의 개간과 다지기, 그리고 조림사업을 포함한 농업작업.

▲3조14항: 회원국가들은 이 권고에서 구체화된 규범과 원칙에 의거하여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인 기준들을 법률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3조15항a: 문화유산의 보호를 책임지는 정부당국이나 지방정부는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에 의해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수행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조21항: 고고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어떤 계획의 사전조사 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의 몇가지 변형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3조27항: 회원국가들은 의도적이거나 무관심으로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에 의해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제에 대한 위반은 벌금이나 감옥형 또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불자가 늘었네요…"

목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옆에서 보던 엄마가 말했다.

"그 색은 하늘색이 아니잖아. 하늘은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아이는 엄마의 손을 끌어 당기며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와 함께 본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었다. 희뿌연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는 생각했다.

'지금은 말로 설명해줘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을테니 가을이 오면 하늘색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지.'

이제 곧 추석이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한국의 가을하늘은 그대로 가을을 상징한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하늘은 어떤가.

공해에 강하다는 서울시청 비둘기들조차 대기오염을 견디지 못해 어디론가 떠날 정도다.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 환자가 예년에 비해 2배이상 늘고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스모그현상이 일상화되고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가을하늘이 제 색깔이기는 쉽지 않다.

하늘이 하늘색을 잃어가는 것은 이땅에 큰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이다. 얼마나 심각하고 슬픈 일인가.

"하늘색을 살립시다"

스모그현상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그런데도 서울의 자동차는 매일 4백대씩 늘고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시장이 호소하고, 곳곳에서 캠페인을 벌여도 마이동풍이다. 너나없이 눈앞의 편리함에 취해 후손들의 호흡곤란증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하늘색이 달라지고 땅이 산성화되고 수질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발등의 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가 증가하듯 오염수치가 높아지면 우리는 서울의 하늘아래서 더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숨을 못쉬면 어떻게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당국은 이제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겨를없이 특단의 환경보호조치를 내려야 할 때이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환경운동에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하늘색을 살립시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우쭐해진다는 것은

우쭐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늘 해치는 일이다. 그것은 그가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머무어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숫타니파타〉

협찬 금강사 주지 자우 TEL.(02)993-3744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 · 발송 · 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신행변화 '결실' …민족종교 '입증'

95 통계청조사 불교인구 증가의의

이번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결과 나타난 1.9% 불교인구 증가는 불교계에 힘을 실어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한없이 힘을 팽창해 가는듯 보였던 개신교보다 0.7%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전통종교로서의 불교의 저력이 드러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 94년 통계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구를 포함 종교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종교학자등 관계자들은 시민사회영역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90년대 들어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증으로 해석했다.

국민생활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종교에 대한 의존도와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종교인도 감소된다는 것. 특히 불교는 고질적인 분규, 재산싸움등 추한 모습이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점이 불교인구의 주 감소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불교인구의 증가는 불교에 대한 호감이 되살아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는 불교계의 각 분야가 안정됨에 따라 제역할을 찾기 시작해 불교계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비자주적이고 침체된 모습과 산중불교 기복불교의 모습만을 전반적으로 보여온 불교계가 최근 들어 복지 환경 공명선거 인권 등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낳고있는 점이 포교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70년대부터 사회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왔던 가톨릭의 신도수가 지난 10년동안 감소없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온 것은 가톨릭의 대 사회적 이미지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불교관련 출판과 영상물의 폭발적 증가와 불교방송 불교TV 개국, 불교교양대학, 직장법회 증가 등으로 인한 대중포교의 원활함 등도 불자 증가의 중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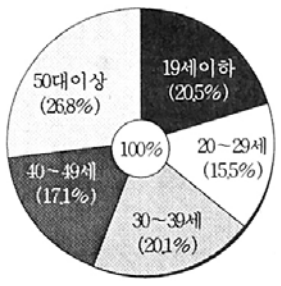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가 각 위치에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가 된다면 불자수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측했다.

최준식교수(종교문화연구원장 · 이대교수)도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식층들의 우리것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민족종교로의 위상을 찾는 현상"으로 분석하며 "불교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으로 전망했다. 지홍스님(금강정사 주지)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행면에서 충실한 진실된 불자가 늘어나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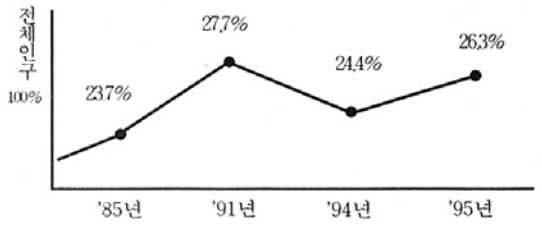
그러나 포교관계자들은 불교인구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래불교를 위한 새싹불자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통계에서도 성인종교인구는 타종교에 비해 월등 앞섰지만 어린이 · 청소년 불자(19세이하)는 1백80만명 이상 적은 수치에서도 청소년 포교에 무관심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야말로 교계에서 입버릇처럼 쓰이는 상투어 '2천만 불자'라는 허수(虛數)를 벗고 불교인이 얼마라는 정확한 숫자를 토대로 혁신적인 포교대책을 세워서 내적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경숙 기자

◇'95년 연령별 불교인 분포



◇불교인구 변화 추세



〈자료:통계청 제공〉

사회복지 참여…방송·직장·도심포교등 '한몫'
'어른 불심' 증가 추세…새싹불자키우기 '숙제'

불교사회운동 재도약 계기

범불교 후원회구성등 국민의식 개혁 앞장

'깨달음의 사회화…' 상설 기획단 출범 의의

지난해 성도재일을 기해 '나와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를 주제로 시작된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하 깨·사)이 지난 4일 운동본부발족을 위한 실무기획단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날 실무기획단장 성관스님(조계종 문사부장)은 "종도들이 깨·사운동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금전달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관리프로그램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실무기획단에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등 유관기관과 경불련 대불청 우리는선우 환경교육원등 불교계단체를 비롯 사찰종무원들이 참여하고있어 조직적인 면에서 범불교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자체분석이다.

실무기획단은 내년 깨·사운동 제창 1주년을 맞아 운동본부를 창립하기로 하고 1차사업으로 △의식확산(홍보, 캠페인성 활동, 이벤트) 및 기금 조성 △불교적 의제구성 △불자대상 사회교육사업 및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전개 할 예정이다. 이어 98년은 사업확장의 해를 정하고 △대도시 시범(조직창립)사업 △장기성 전략사업을 위한 소본부구성 △국제기구 가입등 국제사업진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깨·사운동은 전국의 사찰에서 모금법회를 개최, 기금 5억9천여만원을 확보해 일본고베지역 지진피해지원, 대구가스폭발사고지원, 사할린영구귀국노인자립안정기금, 베트남 한인2세지원등 60여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펼쳤다.

〈엽〉

신도단체 당분간 '삼분정립'

재가연합 독자행보 中信·全信 연말 합류 윤곽

재가연합 재창립과 조계종 신도조직

전국신도회가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전국재가불자연합이 재창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4일 총무원 집행부에 조속한 중앙신도회 결성을 촉구하고 나서 사실상 조계종 전국규모의 신도단체가 3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신회는 7인활성화대책위를 회장취임 준비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100~200명 규모의 준비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직이 향후 전신회 재건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 합류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완일회장이 선출 직후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신도회를 일개 신도단체로 생각해달라. 중앙신도회에 대표자격으로 참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일정 지분 확보 후 중앙신도회 합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에대해 전신회 일부에서는 "화합차원에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도 "40년 법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월주스님도 종회 답변에서 "신도법에 따라 지분을 갖고 동참하라고 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소장승려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가불자연합은 18일 발기인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재창립에 들어간다. 재불련의 한 관계자는 "종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자적인 재가불자운동이 필요하다"고 재불련의 성격을 밝혔다. 재불련에는 지난 94년 개혁종단 출범에 기여했던 비교적 진취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와 전국신도회 재가불자연합 등으로 3분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일각에서는 세 단체의 성격이 확실한만큼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안별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울타리안에서 어울리기는 어려우며, 억지로 합쳐야 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운〉

시론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장 윤 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담배를 '중독성 약물'로 규정하고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클린턴의 이같은 조처는 다분히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다 공화당 봅 돌 후보가 최근 청소년의 흡연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일이 있기때문에 봅 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흡연에 비판적이다. 그같은 사실은 미국 담배회사들의 정치자금 제공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미국의 대표적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의 경우 지난 4년간 공화당에 2백30만 달러를 헌금한데 반해 민주당에는 40만 달러를 헌금하는데 그쳤다.

현대판 아편전쟁 '담배'

담배에는 타르와 피치등 2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니코틴등 각종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나 담배는 중독성 때문에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다. 담배가 '유독성 상품'인만큼 자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조처는 비판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담배의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담배회사들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담배 소비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 돌파구가 바로 해외시장이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외국 담배시장에 위협에 가까울 정도로 압력을 가한다. 현대판 '아편전쟁'인 셈이다. 1840년 청국과 영국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전형이었다. 영국은 자국내에서는 마약을 철저히 규제하면서도 청국에 아편을 수출하려고 전쟁까지 벌인 것이다. 그 전쟁에 청국이 져서 홍콩을 영국에 빼앗긴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미국의 해외 담배시장 개방압력 대상국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은 성인남성 흡연율이 67.7%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담배 소비량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인식이 사회 통념으로 통하고 있어 공공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거침없이 담배를 피운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청소년 흡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교 3년생의 흡연율은 30%로 미국의 20%를 앞지르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시장성과 전근대적 시장구조는 외국 담배회사의 공략대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각종 규제로 국내 판매가 어려워진 미국 담배회사들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개방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한국 같은 나라에 압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담배회사들이 제약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한-미 담배 양해록'이 체결돼 있다. 그 결과 미국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가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기도 어렵다. 미국의 슈퍼 통상법이 노리고 있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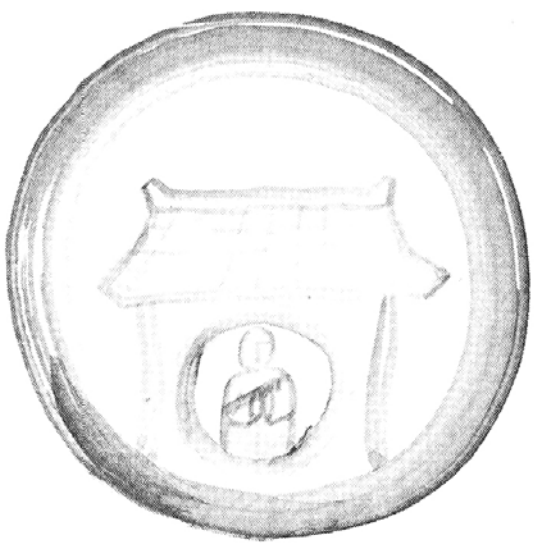
결국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미국 담배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흡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나라도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담배의 판매·광고·흡연을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텔레비전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 부근에서는 담배 자판기 판매를 규제하고 지하철 병원 등 공공장소와 일정규모의 사무실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독성 약물'로 규제를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 외국에서 시행중인 흡연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광범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참에 우리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를 '중독성 약물' 수준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싶다. 그러자면 담배회사를 정부가 운영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담배회사를 민영화, 경영효율을 높여 우리 담배시장을 외국 담배의 침투로부터 지켜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경제력의 규모에 비춰 정부도 이제는 전매수입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생활 속의 불교 ⑧⑧

부처의 면전에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대서야 …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 경내로 들어설 때 합장배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곳이 제불보살의 수행처였으며 스님들이 성도를 얻으려고 용맹정진하는 보리도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량엔 으레 불상이 봉안된 법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불제자의 입장에서야 그곳이 성소(聖所)중의 성소일 수 밖에 없다.

도량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는 불자는 없다. 모두들 언행에 조심하고 행여 마음이 흐트러질새라 긴장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음주가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벼운 계율이라도 자칫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한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는 법당에만 있고 도량에만 주석하는게 아니라 내몸에도 있고 나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고 한다. 말하자면 내 몸이 곧 법당이요 나 있는 곳이 곧 도량이라는 것이다. 고로 나는 움직이는 법당인 셈이며, 움직이는 법당인만큼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곧 도량이 되고,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이 곧 도량이 되는 것이다. 내가 시장엘 가면 시장이, 변소엘 가면 변소가 법당인 셈이다.

누구나 자성부처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 한 것은 누구나 자성본래불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다. 고로 내 몸이 부처의 몸이요 내 형상이 부처의 형상이며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된다. 깨우치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제자가 되고 수행하기를 자처하는 것은 이 자성본래불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나도 진짜 부처가 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불제자가 된 것은 자성부처를 만나고 싶어 면회 신청을 해 놓은 것과 같다. 면회가 성사되는 순간을 계합이라 하고 견성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지만 아무튼 면회가 이뤄지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노력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상의 여법한 수행을 통해 쌓여간다. 그런데 면회신청만 해놓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가능해질까?

바깥 도량에 가서는 제법 경건해지는 불자라도 제 도량에서 경건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행주좌와 중에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계율에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껏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속임수 거짓말에다 나아가서 범죄행위에 젖어드는 예도 없지 않다.

사찰 경내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던 이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왠만한 과계쯤 대수롭지 않게 저지른다. 곰곰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질 일이다. 자성부처의 면전에서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니 …

옛 선사들께서는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라도 세존을 뵈온듯이 처신하라'고 가르쳤다. 내몸이 법당이요 나 있는 곳이 도량인데 어찌 성소에서 방일한 짓을 하겠느냐는 경책의 말씀이다.

우리들은 흔히 혼자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더욱이 자성본래불이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 보고 있음이다. 그러니 '나만이' 아는 일은 없다. 법계가 알고 자성부처가 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부처의 면전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다. 불자라면 그렇다. 더구나 부처님께 면회 신청을 해놓고서 말이다.

바깥 도량에서 경건하듯이 내 안 도량에서도 경건해야 한다. 그게 참회이기도 하다.

협찬: 한기성 · 김혜경

법회 안내

성륜사(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오후2시

명락사(02)889-7272
정기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둘째, 넷째 일 낮12시
명화회법회 매월 1일(음) 낮12시
자모회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4시
신도회법회 매주 토 오전8시

대명사 금강선원(02)553-4856
참선법회 매주 화 오후6시30분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참회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미타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조실천도재일 18일(음) 오전10시

용천사(02)642-2070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칠성재일 매월 7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목련불교학생회 매주 일 오전11시

연산정사(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자광사(042)283-5421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6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30분

한마음 제주지원(064)21-466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림법회 첫째, 셋째 목 오후7시
요전법회 매주 수 오전11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30분

혜진선원(032)693-332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예천포교원(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덕명사(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첫째, 셋째 일 오후4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수해사찰 16곳에 격려금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7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수해 피해사찰 복구비로 16개 사찰에 1천6백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일환으로 모금한 불교계 성금 5천6백만원을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평불협 임시총회 개최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스님(은해사 주지)은 지난 10일 평불협 회의실에서 평불협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및 예산안 심의, 북한불교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의탁 노인초청 위안잔치



제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스님은 오는 20일 지역내 무의탁 독거노인을 초청,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한다.

해인사 대장경연구소장 재임



종림 해인사 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지난 8월27일부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불교회관 개원법회

한파 김해불교사암연합회장스님(진영포교당 주지)은 오는 13일 김해시 내동에 불교회관을 개원, 법회를 갖는다.

불전국역연구원 회장에



화담 보광사주지는 지난 2일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의 연수·연구원 모임에서 회장에 피선됐다.

'서울 개인전' 준비차 귀국



경암 美 버지니아주 보립사 주지스님은 불사기금 조성을 위한 개인전 준비차 지난 3일 귀국했다. 현장포교를 하면서 틈틈이 익힌 그림·서예솜씨를 10월 하순 서울 인사동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강원불교대학 6기 졸업식



백운 강원불교대학 학장스님은 지난 1일 춘천 석왕사에서 제6기 수강생 1백50명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JTS 사단법인인가 받아

법륜 제이티에스(JTS) 이사장스님은 지난 8월24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를 위한 민간기구인 JTS를 향후 복지법인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진신사리 친견·점안법회

김덕진 1733부대 호국백일사 법사는 지난 1일 진신사리친견과 점안·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동북아 평화모색 프로 개발 주력"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진행 지하·도원스님



◇지하스님



◇도원스님

지난 5일 중국 불교대표단이 방한하면서 막이 오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준비한 주역으로 집행위원장 지하스님(중앙승가대 학장)과 사무총장 도원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이 손꼽힌다.

지난해 중국 북경대회를 마치고 준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두스님은 1년여에 걸친 준비기간동안 한국불교의 정수를 보여주고 삼국 불교계의 유대를 강화하기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해 왔다.

"언어문화가 달라 공동선언문채택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하스님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불교계가 주관하는 나라간의 협의기구이며 이번 서울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11일 동국대에서 한국전통의 영산대재형식으로 세계평화기원대회를 개최하고 여의도에서 불교문화대제전을 14일까지 펼치는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리 도착한 각국대표단의 국내사찰 참배를 비롯 숙식점검등 제반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는 도원스님은 "삼국불교계의 학술 문화 인력교류등을 통해 각국의 불교발전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도모가 이번 대회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중국 국가 부주석급인 조박초(趙樸初) 중국불교협회 회장, 중국 당대의 최고 고승인 명량(明暘)법사를 비롯 각 성(省)의 종교관계책임공직자 1백80명,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나카무라류우댕(中村隆隆) 전일본불교회장(정토종 종정)스님등 3백여명이 참석하고 국내에서는 28개 종단 대표가 참석한다.

이준엽 기자

"미래 선도할 교육기회 제공"

2일개원한 동대사회교육원 정병조 원장



"이제는 대학이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학문전수 기술전수를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층 다양해진 사회의 요구에 따라 현대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놀랄 정도로 진지합니다. 우리 사회교육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문 교양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열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2일 개원한 동국대 사회교육원 정병조원장은 동국대만의 특색인 불교교육도 현대학문과 연계시켜 '불교심리학' '불교경제학'등의 강좌로 한층 발전시키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미래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다른 대학과 차별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을 2천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원장은 "배움이란 평생 해도 모자라는 즐거움"이라는 말로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기를 기대했다. 〈숙〉

"자비정신 바탕 의정활동"

경북도의회 정각회 주기돈 초대회장



"나보다 남을 돕는다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간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려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불교모임인 정각회의 초대회장 주기돈(67·신한국당 울진)의원은 불심을 밑바탕으로 한 자비와 상부상조를 통한 올바른 의정활동의 구현을 강조했다.

정각회는 92명의 경북도의원중 52명의 불자로 구성된 지방의회 최초의 불교단체로 수행과 포교를 겸한 대승불교를 지향해 나간다는 방침. 정각회는 국회정각회, 새정치국민회의의 새연등회, 청와대 청불회 등과 함께 정계에 불교바람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현재 울진 불영사에 다니고 있는 주기돈회장은 앞으로 매월 고승초청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불심을 다져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윤〉

청와대불자모임 청불회 **박세일** 초대회장

"불교계 어려움 해소 앞장"



지난 8월26일 청와대 불교신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은 "청불회는 신심증장과 회원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신행모임"이라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어려운 일을 해결, 불교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고등학교때 출가를 결심할 정도로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정책실장을 맡아 불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창립법회는 10월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운〉



현해스님 '법화경요품강의' 출판법회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법화경요품강의〉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8월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됐다. 원로의원 석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태고종총무원장 혜초, 원효종정 법홍,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조계종중회의장 설정 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최형우 신한국당의원, 이평래 충남대교수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우호회의 중국대표 조계사 방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한중일불교우호회의 서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참가단 일행이 지난 5일 내한, 조계사를 참배했다.

단장 안상스님(광소성불교협회 부회장겸 비서장)을 비롯 1백28명은 조계사 참배를 시작으로 단양구인사, 경주불국사, 부산 범어사 삼광사 등을 참배하고 본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혜명보육원 신축 준공법회

혜명보육원(원장 강보순) 신축준공법회가 지난 8월31일 봉행됐다. 낡은 기존 보육시설을 헐고 현대식으로 신축된 혜명보육원은 대지 1천3백여평 건평 4백2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숙사6동 도서실, 식당, 법당 및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동광 혜성스님, 금천구청장 반상균씨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게시판

▲불교문화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오는 15일 청주박물관, 용화사 칠석불, 탑동 오층석탑 등지를 이순규씨(남도불교문화연구원장)의 안내로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28-9098

▲금강불교학교 수강생모집=마하연부평포교원(원장 종연스님)은 오는 16일 개강하는 금강불교학교 제5기생을 모집한다. 수업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032)523-9911

▲교리강좌=청계사 서울포교원(주지 현조)은 지난 9일부터 3~4개월 과정으로 불교입문반, 아함경반, 금강경반 등을 마련하고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02)676-2279

▲정기산행=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오는 15일 광주 무등산으로 9월 정기산행을 떠난다. 출발장소는 오전 8시 동신초등학교 정문앞, 오전 8시30분 동아쇼핑 앞.(051)959-5453

▲어린이 유적답사=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15일 운주사, 쌍봉사, 벽사리민불 등지로 제17차 어린이 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63-466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사무실 이전
주소 :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번지 대광빌딩 6층
전화 : (053)768-8008 팩스 : (053)766-3678

한길로스님 입적…사리 12과 수습



한길로스님(봉인사주지)이 지난 8월31일 남양주군 봉인사에서 세수 78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지난 2일 월운(동국대 역경원장) 현호(법련사주지) 스님 등과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봉행됐으며 사리 12과가 출현, 봉인사에 봉안됐다. 한길로스님은 17세에 마곡사로 출가, 만공·한암스님 회상에서 정진했으며 보문고등학교 교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동방불교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에 〈육조단경〉등의 번역서와 〈무가애〉 등이 있으며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초의문화재단

올가을 **추석명절**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멋이 담긴

『차(茶)』와 『다기(茶器)』를 선물합시다

문화부에서 선정하여 외국의 국가 수반에게 선물용으로 사용되던

초의 선사의 다기

(다관+숙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가격:150,000원

다도 — 한국다도의 맥은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 되어졌습니다.

맥 — 이제 그의 문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가 생전에 쓰시던 다기를 재현해 숨결과 맥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



· 이 다기는 주문에 의해서만 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물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넣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 주문후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청다기



가격 : 90,000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 예술미를 함께 살린 분청다기는 차(茶)를 즐기는 다인(茶人)들에게 한층 더 차원 높은 차 맛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질(質)좋은 재료와 다기(茶器)의 두께가 잘 설계되어 오랫동안 부드럽고 따뜻한 차맛을 즐길수가 있습니다.

초의차

좋은 찻잎과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된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되어온 차의 숨결과 맥을 용운스님께서 수년간 제다공법의 분석, 연구끝에 마침내 초의차를 탄생 시켰습니다.



초의차 : 가격 34,000원
감로차 : 가격 23,000원

초봄의 이른새벽 이슬을 머금은 차잎 하나하나를 모아서 정성스레 볶고 발효하여 만들어진 초의차는 그윽한 향과 맛 그리고 성질이 따뜻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초의차의 성분과 효능
1. 차잎의 찬 기운을 약발효(15%)로 제거 하였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것과 함께 녹차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 좋은 차잎만을 골라 만들었으므로 우려마시고 난 후의 차잎 상태가 처음 딴 차잎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초의차는 초봄의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고 감로차는 여름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므로 제다방법은 같으나 그 맛과 향이 조금 다릅니다.

동정오룡차

대만 동정산의 차잎을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만든



가격 : 23,000원
대만의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을 자랑하는 동정오룡 그 동정오룡의 차잎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제다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고산오룡차나 동정오룡차에서 느껴지는 역겨운 향을 제거해 그 향이 맑고 부드러우며 맛 또한 뛰어납니다. 대만에서는 해발1,000M이상의 높은산에서 나는 것은 모두 고산오룡차라고 부릅니다. 동정오룡차는 해발1,500M로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선물꾸러미

1. 초의선사 다기 — 가격 150,000 (다관+숙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2. 분청 다기 — 가격 90,000 (다관+숙우+찻잔5개+초의차)
3. 초의차 선물 꾸러미 — 가격 43,000 (초의차1통+감로차1통)
4. 오룡차 선물 꾸러미 — 가격 36,000 (오룡차2통)
5. 초의 오룡 선물 꾸러미 — 가격 45,000 (초의차+동정오룡차)
6. 초의 오룡 사은선물 꾸러미 — 가격 56,000 (초의차+감로차+오룡차)

"茶선물 꾸러미는 추석사은 선물로 20~30%의 가격에 드립니다"

초의문화재단 차, 다기 사업부 전화 : 732-2317~8, FAX : 732-2319

초의문화재단에서는 『차강의』(매주 수·목)와 『참선 강의』(매주 화)도 하고 있습니다. (참선강의는 무료)

학문 성과 회향 '마지막 발원'

산문밖의 禪

고대 철학과 김충렬 명예교수



고인의 책을 읽으며 성현되기 바랐더니(讀古人書希聖賢)
나와 성현 둘 아님을 이제 와서 체득했네(而今體會性中天)
하늘에 닿은 저 반궁, 옷깃 여며 우러르니(泮宮竣極齊欽仰)
도통이 여기서부터 만세에 퍼졌어라(吾道斯萬世傳).

지난달 30일 고려대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진 김충렬교수(동양철학·65)의 자작시 '궐리의 공자묘를 배알하고(拜謁厥里孔子廟)'다.

중국 궐리의 공자묘를 참배하고 지은 이 시는 유가의 성인을 기리며 지은 시이지만, 그의 40여년 학문 연찬의 목적과 서원, 학문적 성과와 감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그의 학문하는 목적은 성인(聖人)을 이루어 '도와 하나 되는 것(道通)는 것'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성인은 공자일 수도, 노자와 장자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의 진리인 道는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동양철학계의 원로로서 62년 중국 문호대학 강단에 선 이래 지금까지 원시유가·도가·대승불교를 학문의 3대 축으로 삼아온 그의 학문적 성향은 불·유·도 '3교 회통(會通)'의 정신이다. 그는 사회인으로서의 국가관·인간관은 유가의 '도덕'을, 시작(詩作)과 서도(書道) 등 예술적 감성은 도가의 '자유'를, 인생과 우주를 관조하는 존재론은 불가의 '화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5년여의 강단생활을 마감한 그는 한마디로 "후회없이 연구하고 정성껏 강의했다"고 말한다.

저녁에는 다음날 강의를 위해 강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읽고, 강의가 있는 날 새벽에는 누워서 강의할 내용을 머리속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서면 신이 난다. 염불하는 스님처럼 준비해 온 강의내용이 저절로 쏟아진다. 무아지경(無我之境)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까지 튀어나온다. 학생들의 얼굴엔 진지함이 서려 있고, 강의실은 법거량하는 도량(道場)이 된다. 흥이 나서 3시간 연속 강의도 피곤한 줄 모른다.

반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곡차를 마신 다음날 강의는 왠지 신통치 않다. 학생들의 반응도 시무룩하다. 이처럼 학생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정이 오로지 '정성 성(誠)'자에 달려 있다는 게 강단 생활에서 얻은 확실한 교훈이란 것이 김교수의 체험담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지라 그는 언제나 공부한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독서와 사색, 연구와 산책, 저술작업과 '시 쓰기' 등이 차분하고도 균형있게 이어진다. 학문활동을 수행으로 여기는 그에게 일상의 생활도 참선아닌 것이 없다. 그야말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그대로 참선의 연장이다. '독서 삼매'와 '서도 삼매' 등의 단어가 그에게는 일상적인 말일 뿐이다.

"이제 7지보살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농담삼아 하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닌 듯하다.

"7지보살은 언제든지 중생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인 10지보살,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는 대원력이 실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생활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불선 회통' 학문연찬 40년…"강의·저술도 참선"

강의 준비 꼼꼼히 하고 강단에 서면
염불하는 스님처럼 무아지경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까지 튀어나오고
강의실은 법거량 도량이 된다

그의 쉼없는 학문 연찬의 길은 이제 고향인 강원도 문막의 서재에서 이어진다. 집필에만 전념키 위해 50평 규모의 서재를 마련해 놓고 8천여권의 장서도 이미 갖다 놓은 상태다. 교수 생활 35년여동안 지난해까지 〈중국철학사고 1, 2〉〈동양사상 산고 1〉〈중국철학사 1〉〈노장철학강의〉 등 10여권 이상의 저서를 펴낸 그는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화엄사상 연구〉〈중국 대승불교〉〈조론(肇論)〉 등 불교학 연구서도 책으로 낼 예정이다.

이같은 왕성한 그의 저술활동은 충실한 강의와 끊임없는 논문 발표로 직결되어 있다.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을 전하는 그의 명강의는 장기적인 연구계획아래 꼼꼼한 준비로 이루어지고, 그 강의 내용은 다시 책으로 엮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의 강의·저술활동은 학문이 단순한 자기 만족의 수단일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부단한 정진을 통해 얻어진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회향하는 보살행인 것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가 그의 학문하는 목적이라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강의와 저술활동에 해당한다. 만년에 그의 호를 '보조(普照)'로 쓰고 싶다는 바람도 이런 연유에서다.

'대쪽 같은 선비'로 일관해 온 그의 학자적 삶은 그의 호와 상응해 왔다. 청광(淸狂)과 허주(虛舟)로 청년기를, 토홍(吐虹)과 중천(中天)으로 40~50대를 지나 온 그는 이제 보조(普照)의 말년을 꿈꾼다. 중년기의 '호'였던 토홍과 중천은 둘다 지도교수였던 중국철학의 대가 방동미교수(국립대만대학)가 붙여준 것으로 각각 '땅의 기운이 하늘로 솟는듯 맑은 정기를 통한다', '기운이 하늘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그의 학문적 열정과 그릇을 짐작케 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무지개를 토하고 하늘에 이른 용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다. 그는 다시금 대일(大日)여래처럼 깨달음의 밝은 빛을 중생에게 비추는 태양이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호를 '보조'라 한 것이다. 그의 좌우명이 '하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비천민인(悲天憫人)'이란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얻은 글이다.

"우주와 천지신명에 감사하면서 하늘과 부모의 은공을 사회에 되돌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원력입니다."

엄격한 유교집안이면서도 부량답과 원찰을 둔 불교집안에서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청·장년기에 유가와 도가를 꿰뚫고, 이제 화엄의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를 관통하려 한다.

김재경 기자

채식보급 불자 도리인지요

문 네가지를 여쭙겠습니다.

①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찰에서는 왜 이판과 사판을 구분하는지요? 수행승은 소수이고 스님이 의식이나 기복에 치중한다면 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②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인연 때문인지요? 그들의 과보는요?

③ 믿음이 약한 탓인지 자꾸 의심이 생겨서 자성본래불을 외며 스님의 말씀대로 주인공을 관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적연해지면서 문득 삼세가 내 한 생각 가운데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일체가 마음을 근거해 가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염불하면서 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요?

④ 순수 채식을 하는 미국의 한 기독교 종파 사람들은 평균수명이 미국인 평균보다 10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채식이 영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실례인데 그렇다면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보급하는게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김도원·경북 문경시〉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답 ① 사판·이판은 소임입니다. 사판·이판이 둘이 아닌 가운데 제각기 성품 자체로서는 그대로 정법이 아니겠습니까? 정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 아닌 도리에서 바른 공법으로 나가느냐 아니냐에 있지 소임에 있질 않지요? 여러분들 각자는 생활속에서 다 소임이나 배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 아닐때 정법이 됩니다.

② 배탈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한 개체 속에 수없는 중생이 같이 살고 같이 작용하고 있으니 누구의 책임일까요? 더불어 같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까? 더불어 같이 했으니 누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 공한 도리를 압니다. 한발 떼어 놓고 가는데 자국 없으니 그렇게 공한 도리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 없는 줄을 알면 싸운 사이도 죽은 사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게 한 놈도 혼자가 아니고 무엇을 한 놈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했다 혼자 받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과보가 어떨 것이냐 하시는데 그건 묻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③ 염불하면서 관하는 방법도 할 수는 있겠지만 밖으로 끄달려서는 안됩니다.

어떤 선사가 공부하면서 자기를 보고 주인공이라 부르면서 예를들어 "주인공, 아침 먹었느냐?" 했고 스스로 답하기를 "벌써 식기 닦았습니다" 했더랍니다. '밥 먹었니' 했는데 '식기 닦았습니다'한 것은 한발 떼어 놓으니 그 한발 없어졌고 새로 한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밥먹고 회향했다는 뜻이지요.

염불하는 이가 염불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마치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길고 짧다 할 것이 없으나 그 생각 있으면 더딥니다.

④ 그 말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떤 사람이 길가다가 풀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짚신에 방울을 달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해서라도 살생을 피하려 했다지만 자격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율을 깨지않고 지키려는 것은 좋다하겠지만 풀벌레 짐승도 둘이 아니니 한점 먹어줌으로써 둘 아니게 인도 환생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 선지식이라면 풀벌레가 천년을 기다려서라도 그 발아래 밟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순수채식을 말씀하셨는데 채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다르다 하겠습니까? 식물을 먹으면 계율을 깨지 않는게 되고 동물을 먹으면 깨는 것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인도 환생시킬 자격이 있고 없고가 문제이지 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 동물이 동물로 보이면 못먹을테고 둘로 보이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겠지요.

마음도리의 반야줄을 잡고 가는 이야 부득이해서 닭잡고 소잡을 때는 둘아닌 도리를 관하고 가면 무명을 벗기는게 되겠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일때 죽이더라도 둘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아프지 않게 고통없이 죽여 그 모습을 바꿔 해탈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인도 환생케 하려면 그 종자를 어디에 심어 싹이 나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겹고 기막힌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 나 혼자 깨달으면 뭣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그걸 낙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둘이 아닌데 어찌 나 혼자 안다고 낙이라 하겠습니까? 기막힌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낙도 아니고 고도 아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뜻이 가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방상하 일체만물 만생을 둘로 보지 않고 본래 나라고 내세울게 없는줄 알아야 완성입니다.

내 자식 내 부모 하지만 그 또한 다생(多生)을 돌고 돌면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어 보았으니 지금의 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의 형제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를 같이하니까 내가 공해서 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둘 아닌 것을 알아야 오늘 질문하신 분도 그 답을 절로 터득하시게 됩니다.

학인 모집 공고

-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전문과정) -

한국불교의 강학전통을 계승하고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전문교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모집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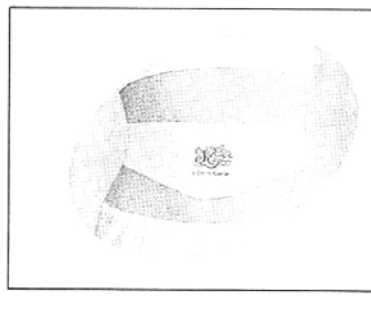
1. 모집인원 : 20명 내외
2. 모집기간 : 불기 2540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3. 응시자격 : 승납 10년 이상인 조계종 비구승으로 종헌 제9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써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자
   가) 강원 사집과목 중강 경력 2년 이상자
   나) 불교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다) 강원과 동국대 또는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의 두 교육기관을 모두 졸업한 자
4. 제출서류 : 가) 본 승가대학원 소정 응시원서 1부
   나) 승적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승가학력)1부
   라) 경력 증명서 1부
   마) 사진(반명함판) 3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전형일자 및 장소 : 불기 2540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교육원 회의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8. 개 강 : 불기 2540년 10월 7일
9. 교육기간 : 3년
10. 교육장소 :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11. 원서 접수 및 문의 : 우) 110-170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전화) 02)732-4923~4
12. 기 타 : 가) 본 교육기관 졸업자는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교수자격을 부여함
    나) 교과목은 사교, 대교, 수의과목과 그외 보완과목
    다) 교수는 종단의 강백스님(전통적인 강의)과 관련과목 전공교수(특강)
    라) 연구비 지급

불기 2540년 8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 대학원장 무비 운영위원장 법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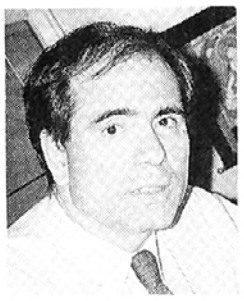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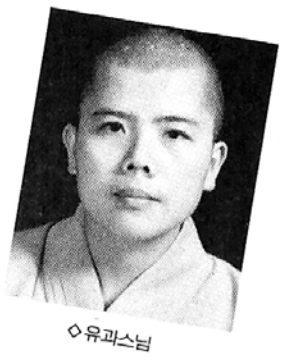
"한국불교 알아야 한국사 보인다"

반고지 신라불교사 연구 푸지오니 '고려 법상종…' 박사학위 유과 한국 선사상 심취

한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다름아닌 '불교'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국불교에 매료돼 불교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이 오히려 한국역사와 문화 등에 관심을 갖게되는 경우도 많다. 즉 '한국의 역사=불교, 불교=한국의 역사'라는 등식은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들에겐 진리 불변의 공식인 셈이다.


◇반고지씨


◇푸지오니씨


◇유과스님

한국불교 연구하는 주한 외국인학자

불교 발상지에서 한국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건너 온 반고지씨(Pankaj, 인도·정신문화연구원 초청연구원)는 '신라초기에 있어서 불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주제로 정해 놓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뒤지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유·불·도가 함께 성행하긴 했지만 불교가 한국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불교역사가 상당부분 왜곡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고지씨의 본래 연구분야는 한국사. 그러나 반고지씨는 한국불교를 알아야만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불교연구를 시작했다.

토니노 푸지오니씨(이탈리아·前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행정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고려시대 법상종 교단의 추이'라는 논문으로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토니노씨의 본래 연구분야 역시 한국사였다.

"한 교단의 흥망성쇠를 당시 정치환경과 관련해 연구하다보니 한국불교의 발전상과 현대사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초 선교양종의 통합에 따라 화엄종이 교종에 흡수되는 과정은 한국불교의 '통합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78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행정관으로 부임하면서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토니노씨의 귀착점은 결국 불교였다.

유과스님(대만·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은 이들과는 달리 한국불교에 매료돼 9년째 동국대에서 본격적으로 한국불교를 연구해 온 한국파. 79년 출가해 87년 대만 강원을 졸업한 유과스님은 동국대 학부,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한국불교사상'을 주제로 잡고 禪사상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교리·좌선·실수 등의 조화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바로 그 저력이 오늘의 우수한 불교문화와 전통을 낳게 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대만에 돌아가 강단에서 한국불교를 가르치고 싶다는 유과스님의 또 다른 꿈은 불교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민속과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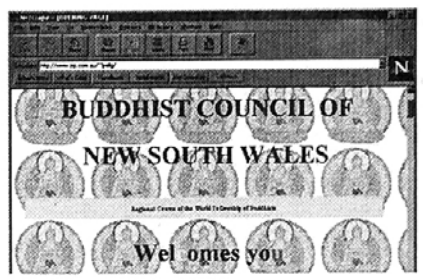
그러나 과거 불교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비친 오늘의 한국불교는 역사를 움직였던 동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침체된 모습이다. 이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어소통도 식습관도 외로움도 아니다. 자신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한국불교가 과거의 역사만큼 훌륭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불교가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이념을 선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한국의 중심임을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한국불교에 매료된 외국인 연구생들의 소망이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호주 불교평의회

사찰·고승·만평등 볼거리 풍성

국가적·국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얻는 혜택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호주의 웨일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평의회'는 1972년 호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웨일즈 지역 백인 불자들이 티벳승을 지원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호주의 대표적인 불교 단체이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호주 불교계 소식 및 활동을 비롯해 △호주 사찰 정보 △대장경전산화 소식 △호주 고승 소개 △논문 △십우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중에서 '불교평의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평이 가장 이채로운 정보. 이 만평은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호주)에 실린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호주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불교의 교세가 현격히 증가한 것을 풍자한 만화. 물론 인구조사 결과는 도표를 통해 상세히 전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불상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홈페이지의 모습과 연속된 자막을 통해 '불교평의회' 최근 뉴스를 보여주는 등 호주불교의 다양한 정보가 이채롭게 제공되고 있어 한국의 네티즌이 한 번쯤 방문해 한국불교와 비교해 봄직한 사이트이다.

'불교평의회'는 'http://www.zip.com.au/lyallg/'로 방문하면 된다.

〈욱〉

"환경운동, 자아개혁이 첫걸음"

英 구하파티·카펜터교수 제기

英·泰, 산림보호·반핵등 생태계 보존 앞장

최근 불교환경운동에서 '자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불교도우의회'(FWBO)의 수석 연구원 구하파티(영국)와 옥스포드대 교수 존 카펜터(영국)에 의해 각각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하파티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 〈달마라이프〉 최근호에 '녹지로 향한 길'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부분의 불교신자는 이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2천5백여년 동안 환경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자아 부정을 통한 자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환경문제에 직면한 불교는 온전한 자아개혁을 통해 깨쳐나아갈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는 "환경운동을 비롯한 불교의 사회참여 경향은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올바른 인식이 불교의 사회 참여적 경향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이런 인식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아의 해체(解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존 카펜터교수는 신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은 생태계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관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달라이 라마(티벳승왕)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세계를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가꾸자"고 제언한 이후 진행된 불교계의 다양한 노력 중의 한 성과물이다.

또 이 주장에 걸맞게 삼림남벌, 수력·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태국 불교계의 환경단체와 핵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반핵단체(NGP)를 결성한 영국 불교계 등 눈부신 활동이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존 카펜터교수는 '낙천주의의 한계를 넘어-불교의 정치적 생태학'(옥스퍼드 출판사刊)에서 정신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불교의 환경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승병운동 배경은 대승적 생명보호 사상"

이효걸교수 주장

조선조 승병운동을 추동시킨 불교 내부의 사상적 근거는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 본래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걸교수(안동대 국학부)는 지난 5~6일 '의병문화 대탐구'를 주제로 안동대학교 문화회관에서 열린 안동의병의거 1백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승병운동의 사상적 배경'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가 짚은 승병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우선 한국불교는 수용할 당시부터 국가 주도로 수용되어 고대국가 형성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선시대 성리학에 맞서 수세적 방어논리로 존립자체에 급급했던 불교는 존립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잠재적 욕구를 키워 갈 수 밖에 없었으며, 호국의 전통이 민간속에 근근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점도 승병운동을 가능케 했던 주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교수는 승병운동이 '불살생'을 계율로 삼는 불교 자체의 사상적 배경이나 타당성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에 해답을 제시했다. 사명대사가 적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살생을 정당화한 것은 물론 무조건적인 행위규범인 '불살생'이 조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살생의 궁극적 목적이 불살생이라는 행위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에 있다면 오히려 현실절대론적 대승사상의 구체화라는 것이다.

호국전통도 승병봉기 요인

이렇게 볼 때 승병운동은 초국가적 보편사상으로서의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적 구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우〉

문화재 단신

'한국문화재도록 미국 ②편' 美소재 1400여점 목록 실려


◇조선시대 금동삼존불상 본존불(높이 40.6㎝·클리브랜드 박물관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은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및 도록 발간사업 5번째로 최근 '한국문화재도록 미국 ②편'을 펴냈다.

이번 도록에는 시애틀박물관 등 미국 5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불상·회화·도자기·민속공예품 1천4백여점의 목록과 3백여점의 도판이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1백점(일본 80점, 한국 10점) 정도가 남아있는 고려불화 가운데 클리브랜드박물관이 소장한 7점의 고려불화와 시카고미술관 소장 16세기 작품 '아미타여래도', 18세기 작품 '지장보살도'가 실려있어 관심을 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願成佛度衆生(원성불도중생)

이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으소서
지혜가 자라 보리심을 발하소서

선암사

범종각

지옥고를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
원컨대 성불하여 중생구제 하소서

聞鐘聲煩惱斷(문종성번뇌단)
智慧長菩提生(지혜장보리생)
離地獄出三界(이지옥출삼계)

해설 잘 알다시피 절에서는 하루 세번 예불을 봉행한다. 새벽과 낮 저녁에 예불을 봉행하는데 이중 새벽과 저녁 예불은 범종각에서 범종을 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종각은 범종뿐 아니라 목어 운판 법고 등의 사물을 갖추고 있다. 선암사의 범종각 주련은 범종을 칠 때 염송하는 종송(鐘誦)이다.

범종 소리를 듣는 모든 중생의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샘솟아 진리를 발현해 지옥고를 벗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며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염원은 종을 치는 스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종소리를 듣는 모든 중생의 마음이기도 하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이 종소리 듣고 번뇌 끊으소서"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은 역사가 1,400여 년이 넘은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오는 길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시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 (0677) 64-2861, 63-4612 팩스 : (067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 (051) 632-0383/대구·경북 : (053) 255-2838/서울·경기 : (02) 238-9910

불교 출판정보 전산화 '발등의 불'

출판정보통신 출범 '전자책방시대' 예고

불서 DB작업 '부다피아' '불교자료실' 등 2곳뿐

인터넷·PC통신통해 양서찾기 이용자 급증

독자들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신간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책을 통신으로 신청해 구입하는 전자책방의 대중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9월1일 우리나라 출판정보의 전산화를 맡게될 (주)한국출판정보통신(대표 강경중)이 정식출범함으로써 출판유통현대화의 토대인 출판정보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 출판사-도매업체-서점-독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VAN(광역정보통신망)사업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늦기전에 불교계의 자체적인 불교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양질의 불서정보 제공 등 새로운 정보화 환경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출판정보통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제공이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출판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점도 자체적인 불서정보 전산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본지의 인터넷 '부다피아'와 불교방송이 천리안·하이텔상의 '불교자료실'을 통해 불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보바다인 인터넷상의 불교관련 가상(전자)도서관과 전자책방의 숫자 및 질에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다피아내의 사이버책방 '여시아문'의 경우 베스트셀러·신간·추천도서·소식지 등을 제공,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방 여시아문이 소장하고 있는 1만여종 상당의 '전체불서목록'을 아직 입력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5천여종의 불교도서목록을 PC통신에 제공하고 있지만 천리안 등의 패킷(Packet)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불서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불서초록'을 게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교방송의 불교정보연구소 박기태 선임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곧 부다피아에 상응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부다피아가 불교전자책방의 역할을, 불교정보연구소가 가상불교도서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사정과는 달리 인터넷상의 불교전자책방, 불교가상도서관 등의 운영은 활발하다. '일렉트릭 라이브러리(http://www.elibrary.com/)' 등 도서·잡지·지도·방송원고 등을 내용까지 소개하는 전자도서관내의 불교관련 정보는 물론 150여개 이상의 불교사이트 대부분이 불서정보를 제공, 판매까지 하고 있다. 특히 불교전문 책방·도서관도 수십여개에 달한다.

■ 불교전자책방
- Wisdom Books(http://www.demon.co.uk/wisdom/)
- Snow Lion Publications(http://www.well.com/user/snowlion/)
- Clear Light Books(http://www.clearlight.com/).

■ 불교가상도서관
- Buddhismm on Web(http://www.inet.co.th/cyberclub/bow/)
-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http://coombs.anu.edu.au/)
- Center for Buddhist Studies(http://ccbs.ntu.edu.tw/CBS-bin/userfrom/)

김재경 기자

출판 화제

최인호씨 수필집 '사랑아…' 펴내

가톨릭신자로 불교소설쓴 이유등 고백


◇최인호씨

"나는 '경허(鏡虛)'라는 두레박을 타고 불교의 깊은 우물로 내려갔다. 2천년간 이어온 우리의 불교정신이 우리 민족의 영혼임을 깨달았다."

경허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베스트셀러 〈길없는 길〉의 작가 최인호씨(51)가 수필집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여백 刊)를 펴냈다.

지난 87년 가톨릭에 귀의한 뒤, 불교 소설가 정찬주씨를 통해 불교와 경허스님을 알게되고 드디어 〈길없는 길〉을 펴낸 최씨는 〈사랑아…〉의 '불교소설을 쓴 까닭' · '내 인생의 주인공은'이란 난을 통해 이같은 사연을 고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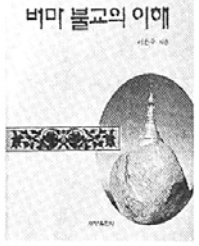
그는 또 '육신이란 무엇인가'란 글에서 정신의 메마름을, '더 깊은 청산'에서는 맨발과 빈손의 수도자와 청산에 숨은 불교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힌다.

과학사상 가을호 '카프라 특별대담' 실어

계간 〈과학사상〉(발행인 이성범)은 가을호에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등의 저서로 '신과학운동'의 물결을 일으킨 세계적인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박사와의 특별대담 '동양의 지혜가 미래를 밝힌다'를 게재했다.

서강대 김영덕교수(물리학)와의 대담에서 카프라박사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관련, 현대 인지과학의 시스템식 접근을 예로 들면서 "마음이라는 현상은 자연계 전체에 퍼져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생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버마불교의 이해 — 이은구 지음



초기불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버마(미얀마)의 불교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미얀마 양곤의국어대 객원교수를 역임한 이은구씨(한국외대 강교의 전파로부터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통일왕국이자 버마에서 상좌부불교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한 버강시대(11세기 중엽)를 중심으로 버강시대 이전과 이후의 남방·상좌부불교 역사적 조명 '충실'

사)가 쓴 〈버마 불교의 이해〉는 버마불교는 물론 남방·상좌부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 연구서로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버마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현실감있게 소개한 이 책은 인도 초기불교를 역사적으로 조명했다. 또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에 있어서의 종교적 사상과 실천의 차이, 버마불교의 사회적 지위와 주요 불교유적지 등을 사진을 곁들이며 설명했다.

〈세창 8천원〉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 이동주 지음



우리 전통회화의 아름다움과 미술양식의 흐름을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학술원회원인 동주(東洲) 이용희씨가 지은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은 고분벽화부터 고려불화, 조선시대 풍속화까지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주요 흐름을 섭렵한다.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주요작가의 작품세계를 화려한 원색도판과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동양회화 감상의 기초지식, 고구려 벽화,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시대, 가장 비중을 많이 둔 다양한 작품세계의 조선시대 회화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고 있

벽화서 풍속화까지 전통회화 섭렵

다. 특히 '고려불화의 세계', '조선초기의 불화'편에서는 관무량수경십육관변상도 등 각 불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왕가와 불화' '수수께끼의 화인 이자실' 등 생소한 자료도 소개한다. 〈시공사 2만원〉

화제의책

새로나온 책…



▲불교윤리학논집(법혜스님 편역)=동국대교수인 법혜스님이 편역한 이 책은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의 윤리학을 시대별 지리별로 정리,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윤리가 어떠해야 할 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원로인 平川彰 등 일본학자 6명의 논문과 故 고익진교수의 논문 '불교윤리와 한국사회'가 실려 있다. 〈동국역경원 1만5천원〉

▲숨어사는 즐거움(허균 저·김원우 엮음)=백월(白月) 허균의 여러 저서들 가운데 은둔사상의 실천적 국면을 조리있게 편찬한 〈한정록(閑情錄)〉은 그의 철저한 아웃사이더 정신의 산물이다. 옛 선비들의 한적한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교·도교적인 취향에 맞는 은둔과 풍류 이야기들을 가려 뽑은 독서 노트.

〈솔 5천8백원〉



▲사후생(퀴블러 로스 저)=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더욱 진지해 진다. 지난 10년동안 전세계에서 2만5천 가지 죽음의 사례를 연구한 의학박사이자 죽음학의 대가인 저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대 최준식교수 옮김.

〈대화 4천5백원〉

▲북한산 가는 길(박창규 저)=북한산에 출입한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인물은 원효다. 원효봉과 원효암, 원효가 참선수도 했다는 덕암사 등 북한산에는 원효가 창건했다는 절이 많다. 저자 박창규씨(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가 산행길과 북한산에 얽힌 일화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평화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영원한 자유의 길	강 정 진	경 서 원
5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6	그 마음을 바쳐라	길 재 웅	용 화
7	기도	일 타	효 림
8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분별은 버리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독송회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유마경

중부인도 바이샬리성의 불자요 부호(富豪)였다는 유마힐의 설법은 그옛날 속세에 살면서 가르침을 지키려던 이땅의 불자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깨달음을 주는 영감의 샘물이었다.

신라의 김유신은 열 일곱살때 석굴에 들어가 하늘의 도움을 비는데 '난승(難勝)'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비법을 가르쳐줬다고 했다(삼국사기). 난승이란 〈유마경〉에 보이는 '난승여래'라는 부처님이다. 유마힐의 설법을 담은 〈유마경〉이 삼국시대 재가신도들 사이에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마힐은 돈과 권세와 명성을 위해 뜀박질하는 오늘날 속세의 인간들에게 더 절실한 감동과 영감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는 우선 겉보기에 평범한 '중생'의 선량한 이웃이다.

그는 재물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보시하며, 계율을 범한 것같이 보이면서도 작은 죄에도 강한 두려움을 가지며, 성난 것같으면서도 항상 너그럽게 인내한다.

그만큼 유마힐은 스스로 불자인 척하지 않는 겸허한 불자였다. "세간의 서적에 밝으면서도 불법을 바라고, 사(邪)된 모습을 지닌 채 바른 가르침(正法)에 들고, 세속을 버리지 않고도 바른 행위(威儀法)를 지키며 능히 세속을 따른다"고 했다.

그에게는 도를 닦는 도량(道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청순한 마음(直心)과 보시와 사랑(慈)이 모두 도량"이라고 했다. 세속이 바로 도량이다.

그래서 그는 "널리 세간에 노닐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정치와 법률에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救護)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 한 몸의 열반'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승(大乘)'의 법과 맞닥뜨리게 된다. 또 '널리 세간에 노닐면서 사람들을 구호'했던 유마힐은 그 옛날 인도땅 바이샬리성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도시 후미진 어느 곳에 있어야 될 불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때묻지 않은 이름' 유마힐은 '영원한 현대인'의 이름이다.

게다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리고 미륵을 비롯해서



정 경 희
(언론인)

"正法지키는 유마힐의 모습 참불자 생활 일깨워주고…"

마지막 문수사리에 이르기까지 다섯 보살과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의 설법은 다른 경전에서 보기드문 활기가 넘쳐 시원하다. 또 최고급 문학작품만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이 뛰어나다.

"먹는 것은 오직 단 이슬(甘露)뿐, 해탈(解脫)만을 맛봐 마시고 맑은 마음에 목욕하고 계율을 향(香)삼아 바르며…"

탐욕에 조바심치는 속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이런 향기높은 구절들이 〈유마힐소설경(所說經)〉을 보석처럼 꿰뚫고 있다. 각별히 불경을 이해하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 두텁지 않은 분량이다.

이 속인(俗人)의 시대에 번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유마경〉의 재발견을 경험하는 감동이 있었으면 싶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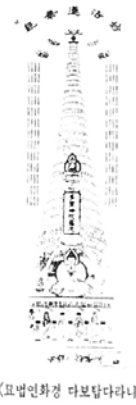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앙질의 경면주시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전장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⑫

後來 釋迦佛住世的時候
후래 석가불주세적시후
波斯匿王很相信佛法 取釋種女
파사닉왕흔상신불법 취석종여
生下一個太子 叫作琉璃
생하일개태자 규작유리
琉璃幼時 在釋種住的迦毗羅閱城讀書
유리유시 재석종주적자비라열성독서
一天爲因戲 坐佛的座位 被人篤他
일천위인희 좌불적좌위 피인독타
把他拋下來 懷恨在心
파타포하래 회한재심

훗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적에
파사익 왕은 사납지만 불법을 믿어 석가족 여자를 얻었는데
거기서 한 태자를 낳아 유리라고 불렀다.
유리는 어린 시절 석가족이 살고 있는 가비라 성에 머물며 공부를 했다.
하루는 놀이 삼아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
끌려 내려오게 되었으므로 마음속에 한을 품었다.

及至他作國王 便率大兵攻打迦毗羅閱城
제대제자청문불
佛便將過去村民喫魚類那段公案說出
불변장과거촌인끽어류나단공안설출

목건련존자가 신통력으로써 석가족 5백인을 발우에 넣어 공중에 매달아서
저들을 구출코자 했다.
그러나 발우를 내렸을때 5백인이 모두 피로 변한 것을 어찌 알았으리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촌민들이 고기를 먹던 그러한 일을 말씀하셨다.

那時大魚 就是現在的 琉璃王前身
나시대어 취시현재적 유리왕전신
他率領的軍隊 就是當日池裏的魚類
타솔령적군대 취시당일자리적어류
現在被殺的羅閱城居民 就是當日喫魚
현재피살적라열성거민 취시당일끽어
的人
적인
佛本身就是當日的小孩
불본신취시당일적소혜

因爲敲了魚頭三下 所以現在要遭頭痛
인위고료어두삼하 소이현재요조두통
三天之報
삼천지보

"전생에 장난삼아 고기머리 세번 때려 부처님은 삼일간 두통의 과보 받았다"

급지타작국왕 변솔대병공타가비라열성
把城裏居民盡數殺戮
파성리거민진수살륙
當時佛頭痛了三天
당시불두통료삼천
諸大弟子 都請佛說法 解救他們
제대제자 도청불설법 해구타문
佛說定業難轉
불설정업난전

그때의 대어는 현재의 유리왕의 전신이다.
그가 이끌던 군대는 당시 못에 살던 고기였다.
오늘 날 피살된 가비라성 주민들은 당시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다.
부처님 당신은 그때의 소년으로
고기의 머리를 세번 두드린 까닭으로 지금에 와서 삼일간 두통의 과보를 받은 것이다.

他率領的軍隊 就是當日池裏的魚類
타솔령적군대 취시당일자리적어류
現在被殺的羅閱城居民 就是當日喫魚
현재피살적라열성거민 취시당일끽어
的人
적인
佛本身就是當日的小孩
불본신취시당일적소혜
因爲敲了魚頭三下 所以現在要遭頭痛
인위고료어두삼하 소이현재요조두통
三天之報
삼천지보

定業難逃 所以釋族五百人
정업난도 소이석족오백인
雖彼目蓮尊者救出 也難逃性命
수피목련존자구출 야난도성명
後海 琉璃王 生墮地獄
후래 유리왕 생타지옥
怨怨相報 沒有了期 因果實在可怕
원원상보 몰유료기 인과실재가파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려운 까닭에 석가족 오백인은
비록 목건련 존자의 구출을 받았으나 생명을 잃게 되었다.
후에 유리왕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원한과 원한을 서로 갚아 그칠 날이 없으매 인과는 실재이니 가히 두려운 일이다.

目犍蓮尊者 以神通力 用鉢攝藏
목건련존자 이신통력 용발섭장
釋迦親族五百人在空中
석가친족오백인재공중
滿以爲把他們救出
만이위파타문구출
那知放下來時 已盡變爲血水
나지방하래시 이진변위혈수
諸大弟子謂問佛

龍眼

대중문화에 전생 신드롬 '일파만파'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호진스님에게 듣는 불교의 전생관

"드라마·소설등 전생소재 호기심 자극 윤회이론 뒷받침 없어 오도 우려" 전생퇴행요법 불교 윤회설과 달라

요즈음 갑자기 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생 이야기들이 책으로 영화로 텔레비젼의 드라마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대중가요와 만화에까지 취급되고 있다. 전생을 다룬 한 영화는 관객 동원의 기록에 도전했고,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들은 최면요법으로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현생을 넘어 전생의 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전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전생퇴행요법(前生退行療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전생에 관한 책들도 적지 않게 팔리고 있다.

전생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저술들이 이미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쏟아져 나올 것 같다. 사람들의 전생에 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 전생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요즈음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야단들인가. 서양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그들이 쓴 저술에 자극을 받은 때문인가. 아니면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실사회의 불안감의 반영인가.

이처럼 갑자기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자, 오래전부터 전생을 믿어 온 불교인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진다. 역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생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불교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편적인 사실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무런 사상도 이론도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호기심의 만족이나 심심풀이의 이야기 수준에 머물고 말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현실불안감 반영인가

불교의 역사에서 보면 전생문제가 문학작품의 주제로 사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천년 이래 수많은 종교적인 저술, 문학 그리고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져 왔다. 역시 전생 이론이 병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 인도 고대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전생에서까지 찾았다. 그러나 전생문제가 단순히 문학작품의 주제로나, 호기심의 만족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생이론은 인생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설명이고 열쇠였다.

전생사상은 '윤회(輪廻, samsara)'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동양사상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부처님도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 수도했고, 그의 가르침은 윤회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인도 바깥으로 전파되면서 윤회사상은 전 동양에 알려져, 동양의 사상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윤회이론은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생(生)과 사(死)의 의문에 대해 답을 준다. "우리는 전생을 살다가 현생으로 왔고, 현생을 살다가 후생으로 간다. 그리고 후생에서 죽어 다시 현생으로 온다"는 것이다. 과거의 '현생(現生)'은 현재의 전생(前生)이 되고, 현재의 생(生)은 미래의 '전생'이 된다. 이와같이 전생과 후생은 한없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끝없이 되풀이된다. 자연계에서 물질이 거의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순환하듯이 생명체도 그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 불평등의 문제도 그리고 자연의 신비문제도 윤회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가,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추하게 생겼는가. 왜 쌍둥이는 한 태(胎)에서 태어났는데도 지능이나 성격이 다른가. 오리새끼는 어떻게 해서 알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칠 줄 아는가, 개구리는 뱀에게 한 번도 잡아 먹혀 본 일이 없는데도 왜 뱀만 보면 질겁을 하고 달아나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은 전생을 전제로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전생의 결과가 현생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와 내가 왜 그렇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나는 너에게 특별히 미워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부부끼리의 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까지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삶이 고생스러운가"라는 말을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때 그 원인을 전생에서 찾으려고 한다. 자신이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회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의 형성과 우주 질서 문제에까지도 답을 준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지역은 메마르고 거친데, 어떤 국토는 풍요로운가. 자연과 우주의 문제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전생과 현생과 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불교의 세계론 또는 우주론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윤회사상은 불교의 핵심인 것이다.

요즈음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전생 이야기들은 어떤 원칙도,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작가들 각자의 상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 쪽에서 보면 자칫 이와 같은 작품들이 전생 또는 윤회사상에 대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재생사상이 순전히 환상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단순히 공상소설의 이야기 꺼리 정도로 인식되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반은 불교 최종목표

어느 영화에서처럼, 사랑에 빠진 공주와 악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은행나무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않은 것이다. 윤회는 오직 유정물(有情物=동물)만이 할 수 있다. 무정물(無情物=식물이나 광물등)에게 윤회는 없다. 동물이 식물로 되거나, 반대로 식물이 동물로 될 수는 없다. 윤회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유정의 존재가 짓는 행위, 즉 업(業, karma)에 의해서인데, 업은 동물만이 짓는 것이다. 업이 없으면 윤회는 없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전생 이야기도 정통 윤회설에 의하면 가능성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 자신이 현생에서 지은 업대로 다른 존재로 된다. 아무리 늦어도 49일 안으로는 다음 생이 결정되게 된다. 한 생에서 다음 생(生)사이에 수십년, 또는 수 백년간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 한 생이 끝나면 바로 다음 생이 뒤따른다.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헤일수도 없는 전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한없는 전생(前生)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몇 번의 환생을 했다든지, 전생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최면을 통해 전생을 기억함으로써 병이 치료된다는 것도 불교의 윤회설과는 어긋난다. 윤회설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만 그 행위가 소멸된다. 전생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야지, 단지 최면을 통해 전생의 그 일을 기억해 낸다고 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치료한 어떤 환자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여러 차례 환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623년에는 함경도 지방에 살았던 고구려의 귀족으로, 12세기에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방의 마사이 족 전사(戰士)로, 1231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양치기로, 1338년에는 스페인의 농부로, 15세기 중반에는 인도의 거지로,



호진스님

1941년 경남 울산 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철학과 졸업.
종교학 박사, 현재 동국대학교(경주 캠퍼스) 불교학과 부교수.
초기불교 전공, 저서로 〈무아·윤회(無我·輪廻)문제의 연구〉가 있다.

간병전문인 교육 안내

바라밀 간병인 협회에서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복지공익사회를 이룩하는데 참여할 자원봉사자와 유료전문간병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유료간병을 원하시는 분은 시내 각 병원이나 가정의 환자와 연결하여 간병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당장 유·무료에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가정과 사회에서 요긴하게 쓰일 전문 능력입니다.
이웃에 권하시어 배움의 기회를 함께 합시다.

■ 일 시 : 불기 2540년 9월 10일 ~ 9월 14일 (5일간 20시간, 오후 1~5시)
■ 교육장소 : 사단법인 바라밀 간병인 협회
■ 훈련대상 : 주부 및 준고령자 60명(선착순) 남-30~60세, 여-30~60세
■ 훈련과목 : 간병인 및 호스피스
■ 수 강 료 : 전액무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2장, 도장
■ 문 의 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 협회 전화(051)633-6412~3 전송(051)631-3884

사단법인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 협회

-우학스님 수필집-
거거는맨날 고기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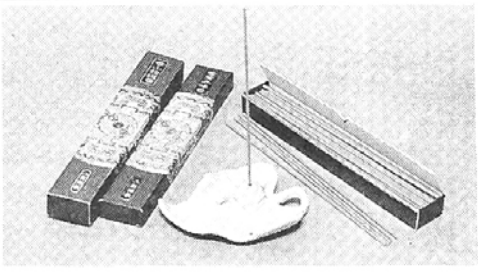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취급점포 및 사원모집

사무직(여) ○명, 주5일 근무 포장직(여) ○명, 주5일 근무 영업직(남·여) ○○명, 주1일 근무	※ 주부 재가신도 환영 회사내규에 의한 급여 상여금 300%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TEL : 467-6047~5 FAX : 467-6045

업력 來生결정…과보 받아야 업 소멸

개인 업은 共業에도 영향 미쳐

업 완전고갈되면 윤회끝나고 '열반'

1631년에는 경상도 지방에서 여자 종으로 환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윤회이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환자가 7세기 때 고구려 귀족으로 살았다면 그는 다른 어느 업보다도 고구려라는 지역에서 귀족으로서의 업을 더 많이 지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설사 그가 아프리카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하더라해도 그는 고구려와 인연이 훨씬 더 깊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는 없다. 업(業)의 세력의 강약에 따라 다음 생의 존재의 형태 출신 환경 국토 등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고구려 귀족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전사로 될 수 있는 업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스코틀랜드의 양치기와 스페인의 농부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있어야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시 본인이 어떻게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업을 지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생에 사람이었던 존재도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의 존재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섯 종류의 세계를 통해, 수없는 존재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 천상의 세계(天途), 사람의 세계(人間途), 아수라의 세계(阿修羅途), 동물의 세계(畜生途), 아귀의 세계(餓鬼途), 지옥중생의 세계(地獄途)가 윤회의 무대이다.

윤회의 무대 육도세계

윤회는 한없는 세월에 걸쳐서 되풀이된다. 일 겁(劫)만 해도 거의 무한대의 시간과 맞먹는 길이인데 억겁을 거치면서 되풀이된다. 윤회는 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업은 윤회를 하게 하는 동력(動力)으로서, 그것이 완전하게 고갈되면 윤회는 끝난다. 이것이 열반이다.

업(業, karma)이란 중생들이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육체로 짓는 행위인 신업(身業)과 언어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이다.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因果)의 법칙(法則)"위에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논리적(論理的)인 법칙(法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성(因果性)은 자연법칙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논리성(論理性), 즉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業)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난다. 그러나 행위는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세력(勢力)'을 남기게 된다. 마치 향(香)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베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다. 행위, 즉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業力)이라 한다. 그것은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업을 지은 그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로 된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이 생(生)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생(生)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업은 한 존재의 현재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사람으로 태어 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짐승이 될 수있는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한 존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습, 성격, 환경, 태어난 국토, 수명의 길고 짧음, 육체적인 조건 등은 그 존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다.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재료가 된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한다. 단체나 사회의 운명은 그 단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 한 존재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 업, 즉 불공업(不共業)을 짓는 것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共業)도 짓게 된다.



◇전생을 소재로한 저술·드라마·영화가 쏟아져 나오지만 사상적 뒷받침이 없어 자칫 불교의 전생관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사진은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광고 화면.

중생들이 짓는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다운 업은 과보를 초래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과보(果報)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선하지도 않거나 악하지도 않은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다.

업과 과보는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하나의 씨앗이 지면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려 익는다. 그 열매의 맛과 성질은 전적으로 그 씨앗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과보의 성질은 업의 성질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밭에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은 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고추와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고추 씨앗의 결과는 고추로 나타나게 되고, 가지 씨앗의 결과는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고추와 가지의 모양과 맛은 그것을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씨앗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업을 지은 존재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만다.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意志作用)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거나 다른 존재가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다. 설사 그것이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업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 성질에 따라 틀림없이 과보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과보는 산술적(算術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동일한 두 개의 업을 지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 음식물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과가 더 크고, 범부에게 보다는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더욱 좋은 과보를 초래하게 한다. 짐승을 죽여도 그 죄는 무겁지만 사람이나 성인(聖人)을 죽이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이와 같은 원리는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업이 일단 결정된 뒤에는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업을 지은 존재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다소 변화시킬 수는 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업의 과보를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잔의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그 소금을 큰 대야의 물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큰 대야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업을 지은 존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업의 세력이 악업의 세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종자도 결과 달라

과보(果報)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곡식이 종자에 따라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 것과 같다. 또한 동일한 종자라 해도 온도나 습도등 그 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싹이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한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도 이와 같아서 일정하지 않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 생에서 지어서 이 생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한다. 역시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과보는 언제인가는 틀림없이 나타나고야 만다.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결코 없다.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그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대로 동일한 업에 대해서도 그 업을 지은 대상과 업이 결정된 이후의 상황에 따라 과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善途)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자는 주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세계, 즉 악도(惡途)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선도의 어느곳에 어떤 존재로 또는 악도의 어느곳에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 해도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소비해야 할 업을 모두 소비하고 나면 다른곳에 다른 존재로 태어나야할 나머지 업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난다. 업을 소비하는 한편으론 역시 새로운 업을 짓게된다. 그래서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다시 죽으면서 윤회는 한없이 계속 되는 것이다. 윤회의 길이는 거의 무한대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있다. 윤회의 끝은 열반이고, 그것이 불교의 목표인 것이다.

지상법석 한회 쉽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84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1

시공간의 상대성

시공간도 시작과 끝 있는 물리적인 실체

물질·색·무색 사람이 지어낸 분별지

상대성이론이 나온 후 물리학자들은 시공간(時空間)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합하여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공간은 사람의 오관으로 보고 듣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체(實體)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시공간의 존재를 전제하여야 물리현상을 논할 수 있다. 물리현상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공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고 느끼며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신작용도 다 두뇌라는 공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오관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다 시공간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시공간은 시공간내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현상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절대시공간을 가정하였는데 이 절대시공간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보인 것이 상대성이론이다.

물질은 우리가 직접 오관으로 보고 느낄 수 있으나 시공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없으므로 물질은 실체라 부르고 시공간은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시공간에도 모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며 물질에 여러가지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에도 여러가지 물리적인 성질이 있다.

경에 이르기를 '…시고공중 무색…'이라고 하였는데 색(色)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시공간의 성질을 살펴보면 우리가 색이라 부르고 무색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뿐 색이 따로 있고 무색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정도 짐작해낼 수 있다. 무색과 관련지어 당분간 이 시공간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시성(同時性)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계(基準係)가 있어 기준계마다 다 시간의 기준이 달라 내가 보기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이지만 동시성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도 사람의 운동상태, 물체의 운동상태에 따라 다 달라진다.

지상에 있는 사람과 빠르게 달리는 로케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로케트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는 사람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시공간에 대한 기준계가 다르다. 로케트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 시간과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 시간의 길이가 우선 다르게 나타난다. 로케트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시간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로케트의 속력이 충분히 빠르면, 로케트에 탄 사람이 일주일간 여행하고 지구에 돌아와 보니 지구에는 백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일도 가능하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수명이 백만분의 일초 밖에 안되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 2~3초동안 붕괴되지 않고 살아있는 일은 실험실안에서나 우주공간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시간의 길이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길이도 달라진다. 로케트에 있는 사람이 로케트의 길이를 30m라고 측정하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날아가는 로케트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30m가되지 않는다. 로케트의 속력에 따라 20m도 될 수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시고공중 무색…"이라는 말에서 색(色)은 물질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물질계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일상적 경험에서 보고 판단하는 물질계와는 크게 다르다. 위에서 잠깐 설명한 비와같이 시간이나 공간의 길이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츰 설명해나가겠지만 물질이 실체라면 시공간도 실체일 수 밖에 없다. 역으로 물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색·무색이라는 것은 분별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 소쩍새마을: (0371)762-987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20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 후원자가 되실 분은 승가원으로 전화 주세요.

한번씩은 부모가 되어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강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 - .

"엄마!"
"아빠!"
가슴 저리는 그리움으로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데
가슴 따뜻한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나?

내가 차라리 사라진다면
내가 차라리 잊혀진다면
엄마 아빠 고통을 덜어줄텐데…….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대부분 버림받았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해도 사랑할 가족이 없고, 사랑받으려 해도 쓰다듬어 줄 부모가 없습니다. 일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세요. 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

셔틀버스 운행 안내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조계사에서 소쩍새마을까지 버스를 매일 운행합니다. (월요일 제외)
- 오전 7시30분: 조계사 입구 출발.
- 오전 8시10분: 동서울 터미널 옆 우성아파트 101동 후문 앞 마을버스 정류소 경유.
- 오후 3시 정각: 소쩍새마을 출발 (토·일요일은 2시)
- 오후 5시30분: 안암동 중앙승가대학 도착.

따스한 부모 품을 기다리는 사람들. - 소쩍새마을



고은 불교대하소설



92

인담이 두 아이를 결코 오랜 시간 공들이지 않고도 이 섬의 수행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시키는 공부를 잘 받아들여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길가의 돌멩이를 알았다가 그 돌멩이를 잘 닦아보니 그것이 마노석쯤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주 보배로운 어린 수행자가 되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이따금 스승 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노라면 여간 대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놀랄만 하였다.

"나는 요즘 우리 어머니가 가신 곳을 알 것 같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는 늘 일만 하셨는데 지금 그 세상에서는 늘 놀기만 하시는 모양이다… 바로 그 노는 일에 실증을 내어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머니를 보았어! 어젯밤."

"어젯밤이라면… 꿈속에서?"

"꿈이라고 할 수도 없어.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잠을 자도 그것이 잠만은 아니야…나 이 섬으로 온 이래 그렇게 뭐가 뭔지 딱 부러지게 정하는 것이 없어졌어."

"이곳이 답답해서일까?"

"응 답답하기도 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의 개미들도 가재도 답답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꼴을 골거야… 하지만 그 꼴은 꿈만이 아닌 것 같다."

"우식행자! 너 도인 다 되었느냐?"

"도인이 별 것이 아니라면… 도인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마음속으로 쉬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야! 너 도인 다 되었구나… 나는 여기 와서 이 섬에서 사는 스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그동안 잘 견디어 왔구나 하고 그분들을 몇번이고 쳐다보게 된다… 이 세상의 어디서나 사는 그런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하루하루 파도 소리만 듣고 사는 그들이… 처음에는 사람 모양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무슨 귀신이나… 둔갑한 백년 묵은 여우나 백년 묵은 구렁이나… 뭐냐, 그런 것이 사람의 탈만 빌려쓰고 있는 것 같았어."

"만우야 네 말이 맞다. 그분들은 그 전에는 여우이기도 했고 구렁이가 되어 아주 느릿느릿 남의 집 담장도 넘어가거나 새 둥지에 들어가 새 알을 낼름 삼키기도 했을거야…."

"그렇지만 우리들은 뭣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들도 몇번씩이나 그것이 되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나는… 심지어 내가 아니라 저 아래채 후원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 소석행자 그 누나였던 일도 있는 것 같아… 그 누나 눈썹하고 내 눈썹하고 꼭 닮았지?"

"시꺼먼 눈동자도 닮았구나. 이제 보니…."

두 아이는 인담이 데리고 올라왔던 산꼭대기로 가는 산비탈의 바위에 걸터 앉아 인담이나 우녀 그리고 대해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아주 성숙한 내용으로 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인담이 비구니 처소인 우녀와 소석들이 각각 거처하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런 일은 긴요한 의논 때 말고는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우녀가 인담을 맞았다. 그러나 광소대로 말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다.

"차(茶) 한잔도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타심통(他心通)으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짓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요즘 살펴볼 께닭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해 그분도 문둥병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냥 얼굴에 병색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섬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꽉 중요하게 여겼다.

대해는 후원 구석에 둔 묵은 곡식을 꺼내어 거기에 있는 벌레들과 바구미를 집어내어 거풍을 하고 있었다. 대해가 심각한 환자라면 그에게 곡식을 손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우녀였다.

"대해처사님… 그만 쉬시지요"

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그랬다. 인담의 말대로 대해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그것은 꼭 굶주린 사람의 부황(浮黃)과 비슷하였다.

"요즘 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도 잘 잡니다. 자고나면 거뜬합니다. 무육도에 와서 몸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쉬엄쉬엄 하시지요. 곡식 만지는 일일랑 어린 행자들에게 맡겨도 좋겠습니다."

인담은 대해와 함께 다섯길쯤 되는 벼랑 쪽으로 갔다. 그 아래에는 시퍼런 강물에 하얀 거품이 뛰엄겨 벼랑을 물어 뜯을 것처럼 달겨들었다가 여지없이 함패당하고 물러서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과도치는 소리가 당장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두 사람의 귀를 틀어막는 것 같았다.

때라서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로 한다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인담이 소리쳤다. 그것은 대해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저 아래가 무육도에서 누구라도 입적하면 화장 말고 수장(水葬) 지내는 곳이지…지난날에는 거룻배에 시신을 태워 저 난바다에 내려주면 고기들이 그 시신을 데려가게 되었지."

"무서운 곳입니다. 중국 천도 밑에도 이와 비슷하게 장사지내는 벼랑이 있었습니다."

"이왕 다른 중생을 위해서 비록 죽은 목숨이나마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공양해야 하겠지… 저 사나운 파도와 함께 벼랑 암벽에 시신이 몇번 부딪히면 하나하나 떨어져나가 고기들이 데리고 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무서운 곳입니다."

"아니오. 이런 것을 무섭다고 하면 출격라는 농담의 인삿말이 있었다.

"이 무육도야 샘물이 차이고 바닷물이 무진장 곡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녀는 찬물 한 그릇을 떠왔다.

인담이 그 물을 한모금 마신 뒤 "지금 육지에는 이제까지의 역병말고 문둥병까지 덮쳐 8도에 문둥이 현감(縣監)들이 많이 몰아다닌답니다" 라고 알렸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눈이 밝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론이 아닙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백성 5만명이 일어나 홍살문을 무너뜨리고 관속들을 징치했다 합니다."

"그 소식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며칠전 꼭대기 토굴 타에 올라갔다 왔거든… 거기 밖에 소식이 오는 곳이 어디이겠오?"

"그런데 우리 대해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타심통(他心通)으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짓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요즘 살펴볼 께닭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해 그분도 문둥병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냥 얼굴에 병색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섬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꽉 중요하게 여겼다.

대해는 후원 구석에 둔 묵은 곡식을 꺼내어 거기에 있는 벌레들과 바구미를 집어내어 거풍을 하고 있었다. 대해가 심각한 환자라면 그에게 곡식을 손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우녀였다.

"대해처사님… 그만 쉬시지요"

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그랬다. 인담의 말대로 대해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그것은 꼭 굶주린 사람의 부황(浮黃)과 비슷하였다.

"요즘 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도 잘 잡니다. 자고나면 거뜬합니다. 무육도에 와서 몸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쉬엄쉬엄 하시지요. 곡식 만지는 일일랑 어린 행자들에게 맡겨도 좋겠습니다."

인담은 대해와 함께 다섯길쯤 되는 벼랑 쪽으로 갔다. 그 아래에는 시퍼런 강물에 하얀 거품이 뛰엄겨 벼랑을 물어 뜯을 것처럼 달겨들었다가 여지없이 함패당하고 물러서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과도치는 소리가 당장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두 사람의 귀를 틀어막는 것 같았다.

때라서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로 한다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인담이 소리쳤다. 그것은 대해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저 아래가 무육도에서 누구라도 입적하면 화장 말고 수장(水葬) 지내는 곳이지…지난날에는 거룻배에 시신을 태워 저 난바다에 내려주면 고기들이 그 시신을 데려가게 되었지."

"무서운 곳입니다. 중국 천도 밑에도 이와 비슷하게 장사지내는 벼랑이 있었습니다."

"이왕 다른 중생을 위해서 비록 죽은 목숨이나마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공양해야 하겠지… 저 사나운 파도와 함께 벼랑 암벽에 시신이 몇번 부딪히면 하나하나 떨어져나가 고기들이 데리고 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무서운 곳입니다."

"아니오. 이런 것을 무섭다고 하면 출격장부(出格丈夫)가 아니겠지. 삶이나 죽음 같은 경계는 사실 하잘 나위없는 것이오…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죽이는 일이나 들쥐 한 마리 죽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지… 그렇다면 우리 목숨도 그런 파리나 쥐와 다를 바 없는 중생의 하나하나일 따름이지."

"……."

"대해처사! 요즘 몸 관찮으신가?"

"저 말인가요?"

"그럼다네."

다시 지진

> "파리나 들쥐 한마리 죽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본 적 있었나 우리 목숨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중생의 하나일 뿐이지"

"관찮습니다."

"대해!" 라고 인담은 더 큰 소리를 질러 대해를 불러댔다. 마치 그를 당장 저 아래 푸른 물 소용돌이에 내던지기라도 할 듯이.

"네!"

대해도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런 대해일망정 인담이 이제까지 한 말이나 거동에 조금도 어떤 의심스러운 눈치를 채지 않고 평상심 그대로 인담을 스승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때서야 인담이 그런 대해에게 마음이 다가가서 사실을 알렸다.

"대해! 자네 안색이 좋지 않는데…."

"네?"

"자꾸 누렇게 보인다네."

그때에야 대해는 인담에게 한 마디 항변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거야 스님께서… 스님의 눈이 노란 빛을 찾아다니기 때문이겠지요. 마치 해적이 바다위에서 보물섬을 찾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만이 아닐세. 우녀보살도 자네 안색을 걱정하고 있는 중일세."

"무례한줄 압니다만… 그분께서도… 그 본의 눈도 누런 빛깔이 부족해서 그 빛깔을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왜 소석이나 두 행자들의 얼굴에는 누런 색이 없는 것일까?"

"그것도 그럴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소석행자는 어리따운 처녀로 보이고 행자들은 어여쁜 아기들로 보이고… 저만… 누렇게 떠있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겠지요."

일단 입을 열자, 대해도 거침없었다. 바로 이런 점이 무육도에 숨은 도인이 있다는 한 증거인지 모른다.

"딴은… 백법일세…흙속에는 굼벵이 한 마리가 있고 물 속에는 조기 수만마리가 내달리고 있군…."

"이제 저를 밀어서 저 물속에 넣으시겠습니까?"

"이미 밀어넣었다네, 하하."

"하하."

인담은 대해에 대한 새로운 면목을 본 것이었다. 그는 대해를 서슴치 않고 부여안고 서 있었다.

"지금 육지에서는 문둥병이 크게 떠돌고 있어서 문둥이가 늘어나고 있다네. 그래서 이런 문둥이 백성일 바에는 과인(寡人)도 문둥이 임금이 아니냐 라고 울부짖으며 남대문 밖 문둥이 소굴로 나가서 하룻밤을 함께 지낸 임금이 이번에 밀려난 뒤 새 임금이 들어 앉았다네."

"스님!"

"응?"

"스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육지에서 누가 온 일도 없고 누가 육지에 건너간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 두 행자가 건너온 뒤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알려주었다네…."

"그렇다면 그 동풍이 육지 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육지 냄새를 잔뜩 실어와서 스님께 알려주셨단 말씀이지요."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심심풀이로 헛것을 보신 것입니다. 스님 때문에 우녀보살님께서도요."

인담이 대해를 새삼 돌어져라고 쳐다보았다. 대해의 얼굴은 결코 누런 빛깔이 아니었다. 그저 바닷바람에 탄 거무튀튀한 얼굴일 뿐이었다.

그림 · 조향숙



인담과 대해는 벼랑위로 갔다 "저를 저 바닷속으로…"

봉축 '96 新 금강 영험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물하십시오



봉축 佛紀2540년
부처님의 은혜
시계바늘이 높이 있어
시공을 초월하여
전지 만능의 조화를 부리는
호신불 시계입니다

놀라운 신통력! 부적교환 첨단신제품

1. 소원 성취 부적
바람엔 소원성취 부적을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룩합니다.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을
이 칠성부를 봉안하면 무병, 장수, 무위영화의 부적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를 추가제작하여
삼재가든 사람은 언제가 같단 때까지 몸에 지니면 언제 평안이 올라옵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업번창 • 무병장수
• 모든재무사고 • 합격소원성취
• 삼재소멸 • 심신안정
• 원체재난구제
• 영험의 신비체험

귀하의 품격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부적바탕교환형
• 오스트리아산보석
• 5년간A/S
• 3기압 방수방충
• 고급도 크리스탈
• 18K Gold Crown
• 특수 IP도 금장도금
• 18K 금용두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138,000
할부시 계약금:₩18,000
매월 30,000원×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138,000원
남·여한쌍

구입문의: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 ·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가정은 환경보호 전초기지

여성불자 녹색운동 '앞장'

환경수비대 '녹색살림' 10월15일 창단

의류은행·물물교환등 실천지침 마련

불련·공추불 여성분과등 활동 활발

오존주의보, 폐수로 썩어가는 하천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키 위해 여성불자들이 환경수비에 나서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풀뿌리 가정환경운동이 여성불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자원봉사 시민대학의 여성환경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환경수비대 '녹색살림(가칭)' 창단준비에 분주하다.

'나와 만생명과 자연은 하나'라는 주제하에 오는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창단식을 갖는 녹색살림은 △풀뿌리 가정환경운동 △환경의류은행 △알뜰녹색가게 △우리농촌살리기 △환경지침 수립 실천 및 캠페인 등을 주요실천사업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녹색살림은 헌옷을 수집 네팔 인도등에 보내기, 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 등을 비롯 환경제품을 판매 수익금을 환경사업에 재투자 등의 세부적인 환경살리기 실천운동도 결칠계획이다.

녹색살림의 한관계자는 "주부들이 아무 생각없이 쏟아버린 생활폐수가 하천오염은 물론 지구의 환경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여성불자들이 먼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근검절약하는 풀뿌리 가정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창립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성타) 여성분과위원회도 '수도꼭지를 꼭 잠급시다' '절전, 종이를 아껴쓰고 재활용합시다' 등의 스티커를 제작, '아빠·엄마와 함께 붙이는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분과위원회는 사찰환경법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환경보호운동은 물론 신심과 친목을 다지는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구자비의 전화, 맑고향기로운 모임, 경불련 여성분과위원회, 녹색환경감시단을 비롯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여성불자들의 환경보호실천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들어 여성불자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조계종 총무원이 펴낸 환경지침서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가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현스님(금륜정사 주지)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사상과 해법이 담긴 환경지침서가 배포된후 환경보호에 대한 주부불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제는 신도들이 먼저 분리수거, 천연세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몇몇 사찰과 신행단체의 여성불자들은 정기적으로 앞뜰시장, 유기농 상설시장, 저공해비누만들기, 재활용품 수거 등의 환경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누구보다 여성불자들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여성불자들의 '환경보호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라는 일환으로 물아껴쓰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물물교환, 대중교통이용, 에너지 절약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혼자 편하자고 몰래 쏟아낸 폐수, 내가 오염시킨 공기는 바로 내가 마실 수 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깨끗해야 나타가 깨끗해진다(心淸淨國土淸淨)'라고 강조하셨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함은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여성환경모임인 '녹색살림' 출범을 계기로 가정과 사찰에서 여성불자들의 환경보호실천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여성불교단체연 초대회장 김문자씨

"도내 신행단체 한뜻 결속 사회봉사 기회 넓힐터"



"도내에는 역량있는 여성불자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으나 마땅한 구심점이 없어 여성운동이 미약했습니다. 불심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조직을 결성해 여성불자들이 역량을 넓히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창립된 제주여성불교단체연합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김문자씨(49, 제주불교사회봉사회장)가 밝히는 사업계획이다.

김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여성불자들의 권익옹호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직장 사찰단위별 여성단체를 영입하여 조직강화는 물론 도내 각 신행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명실상부한 여성불자단체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또 "교계에는 대다수가 여성불자이지만 대사회적인 활동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지적하고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포교와 봉사활동 등을 폭넓게 실시해 여성불자들이 신심증장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내 최초의 여성연합회로 출범하는 제주여성불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은 펼쳐온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연꽃모임, 바수밀다합창단, 제주불교관음클럽, 새싹포교회, 연꽃합창단, 한마음선원 등 8개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근〉

여성 게시판

여성 환경지도자 교육

●…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25일~ 12월 16일까지 3개월과정 시민대학 여성환경지도자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불교와 환경문제, 수질 대기오염,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교육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한다.

여성환경지도자교육 이수자에게는 명예환경 감시원 자격증이 지급되며 한국여성 환경네트워크에 가입 활동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02)723-6258

노래·꽃꽂이 강좌

●…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9월부터 3개월과정 주부불자들을 위한 꽃꽂이, 노래부르기 강좌를 개설한다. 주부꽃꽂이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 주부노래부르기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이며 교육비는 3만5천원. (02)932-2333

화장·피부관리 강의

●…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9월부터 3개월과정 메이크업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 12시까지 진행되며 화장, 피부관리, 머리손질 등 자신의 연출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민요·관소리 강좌가 매주 화요일, 비디오교실이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 (02)646-0181

주부 영어교실등 운영

●…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강좌는 홈패션(매주 월·수), 양재(매주 화·목), 메이크업(매주 수), 주부영어교실(매주 월~목) 등이며 시간은 각각 10시 30분. 접수는 매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주부 및 미혼여성이다. (02)985-0161

만화 法句經

* 수행승의 장 *

자기가 얻은것을
가볍게 말라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라

이 향 원



7월의 문화인물 도선국사 도선국사 위상 바로잡기

천년의 법력을 지닌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베스트셀러 풍수 의 작가 김승옥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참 지도자의 비전
제왕의 길 을 만나십시오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만다라로 보고 불법으로 다스린
도선국사의 거대한 생애!

한 나라의 운명은 용기있는 지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한 개인의 운명은 지혜로운 선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천년의 므심한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 속에 거인 하나가 걸어나왔다.
이 땅과 겨레를 눈물겹게 사랑했고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한 선지자
해동의 대사상가, 당대의 선승(禪僧),
제왕학의 달인 도선국사 일대기.

신국판 328쪽 6,800원

추천의 글

선설적인 위대한 인물 도선국사. 그분은 고려를 개국한 왕건의 스승이었다.
도선국사의 큰 삶을 추적하여 이 민족 복원해낸 작가정신이 놀랍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삶의 성노를 예시해준 <제왕의 길>!
일독을 권한다 -김원일(소설가)

평소 아끼던 청년작가가 우리 시대의 묵시록 같은 소설을 써냈다
올바른 길보다는 잔재주가 관치는 시절에 정치한다는 일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하나를 지운다
그것은 남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길러내야 한다는
역사적 시명이다. -제정구(국회위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 400권 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불법 홍포의 힘찬 날개, 책방 여시아문의 개업 두 돌을 축하합니다

풍금 치는 큰스님

박상륜 지음/ 4×6판 220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류동호 지음/ 4×6판 215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우봉규 지음/ 4×6판 225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일지 지음/ 4×6판 256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철저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후 어려운 경전을 쉽게 하기 위해 역경 사업에 힘쓰는 한편, 도심 포교당을 세워 산중에서 행해지던 선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던 용성 스님의 이야기.

고려 불교계의 승려들의 타락상을 바로 잡고자 현실 참여 운동인 정혜결사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이야기.

세속을 등지고 출가하여서도 혼자만의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민초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수많은 불교 서적을 저술하였던 매월당 김시습의 발자취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고 있다.

깊은 수행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올바른 불교관 확립과 함께 깊은 신심을 길러 주었던 한국 불교의 찬란한 빛, 성철 스님 이야기.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호 전화: 313-5047, 5056 팩스: 393-9696



날마다 좋은 날

지묵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지묵 스님 지음/ 신국판 297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지묵 스님이 들려 주는 잔잔한 불교 이야기. 잡지나 신문 등에 연재하였던 글들을 모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묶은 책이다. 전 3부 가운데 제1부는 최선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제2부는 저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솔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3부에서는 불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 질문에 대해 딱딱한 교리 문답보다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답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호 전화: 313-5047, 5056 팩스: 393-9696



연기와 공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마츠모도 시로우 지음, 혜원 옮김
신국판 351쪽
값 6,500원/ 운주사

연기와 공을 불교 사상의 중심으로 보는 저자의 견해가 6편의 논문으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여래장이라고 말해지는 사상과 관념은 연기 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래장 사상 그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또한 불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여래장 사상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극복을 통해서만 연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불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운주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 3 팩스: 723-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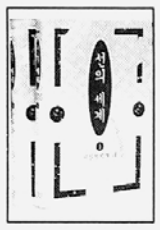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풀이/ 신국판 396쪽
값 7,000원/ 운주사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법구경은 아함경, 숫타니파타와 함께 원시 불교의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해 완전한 해탈을 이루셨으며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따스함도 가지고 있다. 저자는 간결하고 솔직하면서도 더없는 값어와 함축을 간직하고 있는 이 법구경을 솔직담백한 문체로 풀어 나가고 있다. 저자가 법보 신문에 여러 해에 걸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운주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 3 팩스: 723-0646



선의 세계 Ⅰ·Ⅱ

고형곤 지음/ 신국판 양장본 373쪽
값 13,000원/ 운주사

이 책은 1971년에 출간된 〈선의 세계〉에 〈추사와 백파〉 〈화엄신론 연구〉 〈선화〉 등의 논문들을 추가하여 새로 엮은 것이다. 두 권으로 된 이 책의 제1집은 '선에의 현대 철학적 접근', 제2집은 '한국(해동 조계종)의 선'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지극히 가까운 곳이면서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인 선의 세계를 집대성해 놓고 있다.

운주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 3 팩스 723-0646



알기 쉬운 천수경 강의

이지환 엮음/ 신국판 320쪽
값 6,000원/ 관음 출판사

이 책은 천수경의 무한한 공덕을 '누구든지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천수경을 하루밤에 다섯 번만 외워도 백천만억 겁에 지은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목숨을 마칠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이끌어 원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며, 마음이 밝아져 드디어 정각을 이룰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응두동 751-14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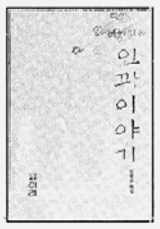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이다

이지환 엮음/ 신국판 320쪽
값 6,000원/ 관음출판사

신심 깊은 불자들도 불교가 어렵다고 하거나 빗나간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저자는 모든 만남의 인연 속에서 부처님을 예경하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본다는 것은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고 한다. 우리 참생명의 성취는 실천되는 때가 따로 있지 않다. 바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실천되는 이 생명의 가치를 일컬어 불교라고 말한다. 불교를 보다 쉽게 보여 주고 있다.

여래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전화 730-8976, 723-6801 팩스 723-6801



재미있는 인과 이야기

임원응 엮음/ 신국판 267쪽
값 4,500원/ 여래

스스로의 장래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인과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 경전 속에서 나타나는 설화들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나름대로 엮어서 정리한 것으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초심자를 위해 아주 자상하게 불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래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전화 730-8976, 723-6801 팩스 723-6801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보각 스님 엮음/ 신국판 256쪽
값 5500원/ 여래

불교가 어렵다는 일반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만들어진 책.
특히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나 새로운 발심을 다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전생담에서부터 법화경에 이르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 쉽게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인연 이야기 등을 가려 모았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보시용으로도 좋다.

여래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전화 730-8976, 723-6801 팩스 723-6801



생활 참선 건강법

박희선 지음/ 신국판 317쪽
값 7,000원/ 문창

77세의 고령으로 히말라야 메라피크(6654m)를 무산소 등정한 박희선 박사의 경이적인 심신건강비법을 소개한 책이다. 근대화의 부산물인 스트레스 해소에 참선이 특효약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참선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커다란 효과를 준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 결과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참선 수행법을 소개하여 현대인들의 참선 수행을 권하고 있다.

문창 주소 서울 중구 예관동 122-3 전화 271-0161~3 팩스 267-6742



나를 보게 하소서

현장 스님 지음/ 신국판 249쪽
값 5,500원/ 민족사

우리 한국 불교에 아직은 생소한 '염불선'을 소개한 책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 내가 나를 불러 나 자신으로 돌이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염불선의 수행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을 정화하여 생명의 참모습을 깨우치고 그 광명과 기쁨의 세계를 모든 이웃과 함께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565



천수경 이야기

김호성 지음/ 신국판 215쪽
값 4,500원/ 민족사

천수경은 우리 조상들이 편집한 경전으로서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천수경에서 벗어나 필자 나름으로 천수경을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천수경이 기복(新福)을 위해서 읽히는 경전이 아니고 사회 윤리적 실천 의식을 담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천수경에 담겨 있는 진리는 불교를 신앙하지 않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선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565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김호성 지음/ 신국판 215쪽
값 8,000원/ 민족사

불교 공부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체제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순서를 밟아 경전에 근거하여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반드시 경전의 기르침을 들어서 설명하였으며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되도록 배제, 기존의 교리서와 달리하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불교 방송에서 강의되었던 불교 공부를 재정리하여 일반인들이 불교의 기초,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722-7679팩스 739-7565



신도 포교 지침서 (상)

오성일 지음/ 신국판 405쪽
값 8,500원/ 불광출판부

포교 일선에서 계신 상일 스님이 어떻게 하면 좀더 불법 홍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고민· 연구· 창안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였던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모든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행사를 행사 안내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살법 문안까지 자세히 참고가 되도록 수록하였다. 포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광 주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번지 전화 420-3200, 420-3300 팩스: 420-3400

책방 여시아문 개업 2주년

이 땅을 향기 가득한 부처님 세계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불법 홍포의 기수를 자처하고 여러분 앞에 선 지 이제 두 돕.
책방 여시아문은 그간 고객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조금의 게으름도 허용치 않고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 말없이 지키보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이 있기에 책방 여시아문은 이땅을 불음의 향기 가득한 정토의 세계로 가꾸어가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에 걸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정:**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 선정 발표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는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고른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을 6명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운용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주소: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737-0695 / 팩스:737-0696



사진은 권기종교수의 '불교란 무엇인가' 강의모습.

"평생공부 하실분 오세요"

동국대 사회교육원 9월 2일 개원

일반 사회인들에게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시킬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정병조)〈인터뷰 4면〉이 지난 2일 개원됐다.

사회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불교란 무엇인가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문예창작 광고카피라이팅 등) △전문교육과정(불교전문교육 불교영어 등) △특별교육과정(불교박물관교육 동국TV불교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 현재 2백여 수강생들이 배움에 정열을 쏟고 있다.

좌선법·문예창작·불교박물관등
2백여 수강생 각계 인사 등 동참

동국대는 종립대의 이점을 살린 △불교란 무엇인가와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불교전문교육 △불교영어 등 불교교육과정은 불교의 체계적 이해와 참선수행의 습득과 실생활응용,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는 과정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문학의 큰 산봉우리를 이룬 명문대답게 △문예창작도 관심을 끄는 과정. 또한 불교미술·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나아가 불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불교박물관교육은 문명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 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완수(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김창균(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씨 등 사계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앞으로 합리적인 경제·법률·건강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생활경제 △생활법률 △생활의학, 불화 단청 불상 등의 불교문화재를 제작하는 기법을 익히고 보수하는 기법도 배우는 △불교문화재 보수실기 등 유익하고 다양한 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 수강생들에게는 도서관 및 박물관이용과 20%할인의료혜택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교육원은 9월중에도 계속 수강 접수를 받는다. (02) 260-3727~9 〈숙〉

해인사 소유 폐교된 초등교

불교문화공간으로

'해인사문화관' 11월 개관…주민·참배객 '환영'
민속박물관·사찰의상전시실·수련원 등 갖춰

폐교된 옛 초등학교 건물이 불자등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종합불교문화관으로 탈바꿈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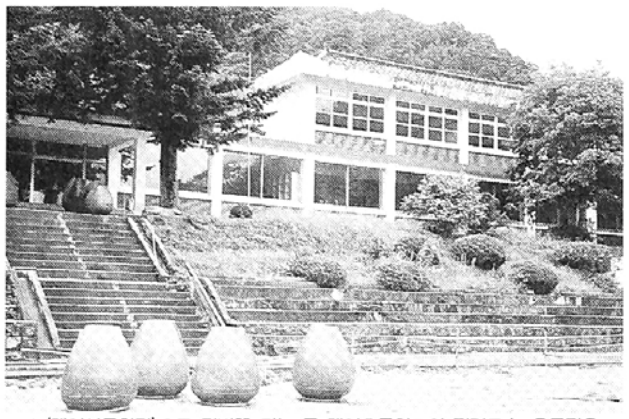
가야산 해인사 입구 허덕교 왼쪽에 위치한 해인사 소유의 구 해인초등학교에는 민속박물관 사찰의상전시실 도예공방 전통찻집과 수련원 등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설 준비가 한창이다.

'해인사문화관'으로 이름지어질 이 문화공간은 오는 11월 정식 개원 예정으로 내부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해인사문화관이 완공되면 해인사를 찾는 년 1백만명 이상의 참배·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실습도 하는 이색 문화학습장이 될 것으로 전망돼 문화포교의 교육장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 1층의 8개 교실은 각종 전시실로 사용될 예정으로 불교생활용품, 민속박물관, 차문화전시실, 합천초계대광대탈, 팔만대장경 자료실, 도예전시 및 실습실, 사찰의상 등의 전시실이 들어서게 된다. 민속박물관에는 예전에 사용해 왔던 베틀 물레 절구 옹기 물레방아 등 1백여점이 넘는 민속자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찰의 상전시실은 승복등 면면히 이어온 우리 한복의 맥을 되짚어 볼수 있는 공간이며 도예실습실은 관람객들이 직접 간단한 생활도기를 만들어 보는 참여가능한 문화공간. 하회탈의 원조격인 합천초계대광대탈전시실도 이색전시실로 눈길을 모을 듯.

통나무와 볏짚으로 만들어져 토속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찻집 '이뭐꼬'와 생활다기 특히 국내최초로 발우형 다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해인토방'은 지난 6월 개원돼 벌써부터 지역의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뭐꼬' 주최로 지난 8월 25일 '스님을 위한 소리공양'이라는 타이틀로 조촐한 국악공연이 성료돼 이곳이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당(80평)과 2층의 3개교실(60평)이 개조된 수련원은 참선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문화관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성공스님(전 해인사기획과장)은 "해인사소유인 학교건물이 8년간이나 방치돼 있는게 안타까워 생산불교적 차원에서 복합문화공간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힌다.



◇ '해인사문화관'으로 탈바꿈 되는 구 해인초등학교의 전경모습. 운동장은 추후 조각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합천=이윤호 기자

금산 보광사 21일 「열린음악회」

금산 보광사(주지 보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금산 청산회관에서 제4회 청소년과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문화축제인 인삼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인혜 피아니스트 임동창 소리꾼 장사익 사물놀이 동남풍 등이 출연한다. 보선스님은 "음악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불교를 포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했다. (0412)53-8080

불심시심 〈62〉

삼월 삼짇날

三月重三此日詹 삼월달 3이 거듭된 이 날이 되어
(삼월중삼차일첨)
陽和태蕩影纖纖 화창한 봄날 그림자 섬세하다
(양화태탕영섬섬)
野花裁錦紅初坼 비단 짜는 들꽃 분홍빛 터치고
(야화재금홍초탁)
澗柳垂絲翠欲添 시내 버들 실 늘여 첨가되는 푸른 빛
(간류수사취욕첨)
釀雨頑雲迷遠壑 비 걸러내는 거친 구름 먼 골이 희미
(양우완운미원학) 하고
弄春啼鳥傍疎檐 봄을 우는 새소리 성근 처마 이웃했다
(롱춘제조방소첨)
踏靑浮白兼詩興 답청에 흰 술에 시흥까지 겸했으니
(답청부백겸시흥)
吟嘯多慙吏部髯 읊으며 비벼대는 한유(韓愈)의 수염
(음소다연이부염)

위 시는 설암(雪巖)선사의 시이다. 설암선사는 월저(月渚)대사의 제자인데 스승보다 먼저 입적하여 그의 비명을 스승인 월저당이 쓰고 있으니, 매우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선사의 사제관계가 일상적 사제로서만 보아야 할 처지가 아님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선사의 유고로 〈설암잡저〉와 〈설암선사난고〉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수록된 시가 거의 1천 수에 가까우니, 선사의 시문적 자질을 익히 이해할 수 있다. 스님의 시는 선사로서의 선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시 속에 선을 함축시킨 완전한 선취시로서의 일가를 이루었다 하겠다.

위의 시는 '중삼유감(重三有感)'이라는 시다. 삼월 삼짇날 느낌이 있어 지었다는 것이다. 늦봄의 경치를 여실하게 표현하였다. 그림자 섬세하다는 표현도 묘하다. 아직 녹음이 들기 이전의 상황이다. 그러니 가느다란 그림자만 있을 수밖에 없다. 꽃이 피는 들은 한 폭의 비단이다. 붉은 빛이 처음으로 터친다 했으니 그리 흔히 쓰이는 시어가 아니다. 들꽃이 비단의 천이라면 버들은 실이다. 붉은 비단의 수평에 푸른 실의 수직적 조화이다. 종횡의 자연사물을 한 폭의 화폭처럼 절합시키고 있다.

구름은 술을 빚듯 비를 빚어내고 있다. 술이 훈훈한 기운으로 사람의 생기를 더해준다면 봄비의 훈훈함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름은 먼 시선을 막아 앞 경치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자연의 신비를 신비로 간직하려는 하나의 휘장일 수도 있다. 봄의 알림은 새소리를 타고 온다. 처마 끝의 새소리는 분명 봄의 신호다. 겨울내내 성글었던 처마에서 영근 새소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다.

푸르름을 밟아 다리에 힘을 올리는 것이 삼짇날의 풍습이다. 여기에 흰 술의 빛을 조화시킨 점도 재미있다. 시를 읊고 술 마시고 술 찌꺼기 묻은 수염을 쓰다듬어 꼬아보는 이 한적함, 시는 시나름으로 그 효과를 거두었다 하겠다.

이렇듯 선사의 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읊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일상사의 모든 것을 그때 그때 시로 읊어 그 많은 유작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어린이에게 희망을…"

올해는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 사단법인 JTS(Korea Join Together Society)가 주최하는 인도어린이사진전이 오는 15일까지 남부터미널근처 아크리스 백화점 3층 연결통로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 3세계의 질병 기아 문맹퇴치를 위한 후원금 마련과 후원인 확보를 위해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티없이 맑은 표정의 인도 어린이들의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2)5810-581

지금 여의도광장에선 불교문화대제전 '한창'

육법공양·사찰음식 시식등 볼거리·먹거리 풍성



여의도광장 1만여평을 불국정토로 장엄한 '불교문화대제전'이 지난 5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흥겨운 풍물패의 길놀이를 필두로 젊은 음악합창단의 자비의 노래 음성공양, 타종과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개회선언으로 본 궤도에 오른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문화관, 역사관, 생활관, 공연장으로 나눠 불교문화전시 및 각종 이벤트를 매일 마련, 불교잔치 한마당을 연출한다.

한중일 삼국불교교류회의에 맞춰 삼국불교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전시한 역사관, 불교미술인들의 개인전으로 꾸며지는 미술관, 조계 태고 천태 진각 조동종 등 각 종단의 역사와 현황을 보여주는 종단관을 비롯 영상관에서는 매일 불교영화 불교TV 제작프로그램이 상영되고, 공예품관과 사찰음식관에서는 불교관련 공예품 전시와 사찰음식 조리과정, 시식행사 등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영산재, 전통화혼식, 육법공양 시연, 참선지도, 중국 소림사 무승단과 한국불교선법 무술시범, 관소리 불타전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의도 특설무대에서 육법공양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반야심경 소재옷 '눈길'

한국예술의상협회展 24일까지

오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예술의상협회展'에는 관세음보살과 동식물을 소재로 한 의상작품(본보 91호 13면 참조), 폐기된 철사와 노방조각을 재활용하여 정결하면서도 고매한 연꽃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금기숙 작)과 대마를 주소재로 반야심경을 쓴 종이를 조끼로 하여 자연에 대한 엄숙한 경외를 표현한 박동준씨의 예술의상〈사진〉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의 의상학과 교수들과 유명의상디자이너 등 총 50명이 참여한 이번 예술의상협회전의 테마는 '환경 21'로,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의상 총 1백점이 선보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절터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 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
연 락 처
0346)594-4974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을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사찰운영하실분
· 위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 부지 : 1400평
· 법당 : 12평요사채 20평 (방3개)
· 사무실 : 12평(방2개)
· 주차장 : 200평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완비 지장보살 기도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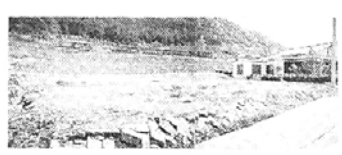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작 복천함
• 을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타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타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T 합장

동불. 탱화. 순금불사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전원주택 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 준농림(전+답) 평수: 114평(전용허가필)
◉ 정남향(집앞가지 포장완료)
◉ 서울에서 현재 1시간 10분거리
◉ 포근하고 아늑한 전천후 전원마을
◉ 금액 : 2900만원

투자성 좋은 전원주택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 지목: 준농림 전 평수 : 155평(전용허가필)
◉ 마을앞 전방 150m에 강이 흐름
◉ 서울에서 1시간 10분거리
◉ 투자성이 매우 좋음
◉ 금액 : 3,700만원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천태종 청소년수련원 세운다

성문사 치악산에 1일 기공…공사비 22억여원 투입
생활관·강당·야영장등 시설갖춰 내년 12월 개원

치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원주벌이 한 눈에 굽어보이는 치악명산 기슭 2만3천여평에 천태종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된다.

천태종 원주 성문사(주지 송재스님)는 지난 1일 원주시 행구동 85-1번지 치악산 기슭에서 운덕 총무원장, 박형철 참의원장, 도원 총무부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97년 12월 개원할 예정인 숙박정원 58명, 야영정원 34명의 '천태 청소년 수련의 집'은 총 공사비 22억 3천만원이 투입되며 부지 총면적은 2만3천평이다.

중부지역 청소년교육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이 예상되는 '천태 청소년 수련의 집'은 8천평의 시설면적과 건축 연면적 3백평규모다.

특히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백10평의 생활관, 70평 강당, 75평 공동취사장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야외시설로 5백60평 야영장, 3백평 야외집회장, 6백평 주차장, 9백평 체육활동장과 5천여평의 기타 부대시설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체력단련, 생활예절, 예술감상, 야영활동, 사회봉사, 역사·연극활동 등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천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송재스님은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청소년의 심성과 품성을 도야하는 도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점차적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규모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 청소년 수련의 집은 2대 종정이었던 남대충 대종사가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불자에게 달려있다"며 청소년교육을 위해 지난 92년 9월 현 부지를 방문한뒤 매입해 95년 10월 허가신청을 받아 건립을 추진해 왔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은 지난 1일 원주 치악산에서 '천태 청소년 수련의 집' 기공식을 거행했다.

합동 득도수계 45명 신청

태고종(총무원장 혜초) 제20회 합동득도수계산림 신청 행자는 4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정수원(정수원장 지허)이 10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실시한 행자소양시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합동득도수계산림은 행자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개최된다.

태고종 소식

전북종무원 2백명 연수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종무원장 수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주 승암사에서 2백여명의 각 사암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불교개론, 업감연기론, 불전강독등의 강의와 △증단 및 종무원의 종무방침 △현대불교 신도관리법등의 교육이 실시됐다.

KBS, MBC, SBS 불교연구회 창립법회

KBS, MBC, SBS 불교연구회가 주축이된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회장 김학선)가 오는 14일 오후2시 여의도 불교문화대제전 현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한다.

박용기위원→공로상 김학주 PD→특별상

33회 방송의 날 시상

불교방송 박용기 방송제작위원과 김학주 PD는 지난 3일 제33회 방송의 날을 맞아 공로상과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용기위원은 64년부터 KBS와 TBC 등에 근무하며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90년부터는 BBS방송제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불교예술, 문화계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학주PD는 한국불교음악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은 기획 프로그램 '불교음악순례'로 작품상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용기씨


◇김학주씨

태국에도 '불교TV' 생겼다

불교TV 방송으로는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태국불교TV 방송국이 지난 8월 12일 첫 전파를 발사했다.

태국 민영방송인 타이스카이 텔레비전의 제 11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태국불교TV방송은 불교교리, 스님법문 등의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씩 3회 순환방송하고 있다.

태국불교TV방송국은 또한 오는 연말부터는 하루 12시간씩 2회순환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등 인근 불교국가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방불교방송국 개국준비 점검

BBS불교방송이 지난해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개국에 이어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의 막바지 개국 준비에 한창이다. 불교대구방송은 오는 10월 개국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불교청주방송은 오는 연말에나 개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지방방송국의 연내개국과 더불어 불교방송의 전국망 확대를 위한 대전, 전주, 춘천, 창원 등 잇따른 지방방송국 추가설립이 허가될 경우 불교방송은 명실상부한 전국방송망체제로 대전환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대구방송(추진위원장 설조스님)은 신입사원 추가선발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하루 4시간씩 시험방송에 돌입, 10월 개국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8층에 불교대구방송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이 마련돼 있는 대구 진각회관.

대구 '맑음' 청주 '흐림'

매일 4시간 시험방송…10월 '전파' 대구
사옥 신축 백지화…연말돼야 가동 청주

불교대구방송도 추진과정에서 서울 중앙국과의 주도권 문제로 시설장비발주등 일부 추진상황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5개본사와 태고종, 진각종 등 각종단의 참여유도로 개국에 필요한 재정이 비교적 원만히 조달됐고 지난달에는 16인의 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구 경북지역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했다. 따라서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각회관 준공검사 허가만 득하게 되면 오는 10월 개국전선은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교청주방송(추진위원장 혜광스님)은 목표로 잡았던 10월 개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청주방송은 올해 초 신축사옥 조감도를 발표하며 상쾌한 개국준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개국에 필요한 출자금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 사옥신축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고 방송시설 장비 발주, 스튜디오 개설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난항을 거듭해온 불교청주방송은 사옥신축 계획을 변경, 지난달 청주시 상당구 건축자재백화점 3개층을 임대 계약해 앞으로 스튜디오 개설과 송신탑 설치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현재 서울중앙국에 머물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청주에 합류하게 된 후에나 시험방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불교청주방송의 개국은 오는 연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불교청주방송은 방송국 개국을 위한 기금마련 선서화전 등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나 해당지역에 교구본사가 법주사 하나뿐인 점등이 5개교구본사가 밀집한 대구 경북지역에 비해 불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개국이후에도 지역사찰과 불자들의 협조체계 구축, 이를 통한 재정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하는 것이 불교청주방송의 가장 큰 과제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WFB와 한국불교 위상

최근 세계속의 한국불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지난 8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집행위원회 긴급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20차 WFB 서울대회의 연기를 의결했다. 이유는 11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네팔에서 개최되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재발견 1백주년 대법회'에 세계 모든 불교지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대회 일정은 94년 제19차 방콕대회에서 결정되었고, 룸비니 기념법회는 최근에서야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다. 따라서 서울대회 연기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박동기씨는 "대회장소와 각국 대표자들의 숙소예약도 마친 상태"라며 연기불가를 주장했으나, 대다수 회의참석자들의 연기 결정을 돌이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대회 스폰서가 불확실하고 조직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올해 대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WFB본부의 판단이 연기를 결정한 더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올해 안이라도 대회개최가 가능하다며 서울대회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교계에서는 세계규모의 대회를 치르는데 불교계의 힘을 모으기보다는 몇몇 사람에 의해 추진되다 끝내 대회 연기라는 국제적인 수모를 당했다며 한국불교의 위상 추락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그동안 서울대회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회장의 돌연한 사퇴, 이로 인해 10억여원에 이르는 준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방콕본부에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그때마다 한국본부에서는 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또 원불교와 종단연합회 지부 등 3분화된 한국지부의 분열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정성운 기자

'바닥수준인 토론문화'

복지사회를 향한 불교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 주최로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워크샵'은 불교사회복지단체장 및 시설장, 학자, 각종단 사회복지관련 주무부서장, 교계 사회·시민단체장 등 복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행사자체로 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1세기 복지사회를 대비한 불교계의 역할과 불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불교복지경력자 및 전문가들이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워크샵은 주최측의 노력과 취지에는 아랑곳없이 좌장의 리더쉽 부족과 발제자의 무성의한 발표태도, 토론자의 발제자에 대한 칭찬일색과 토론을 떠난 자단체 알리기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몇년이 지난 복지시설현황과 정확하지 않은 정부의 복지예산자료를 발표하거나 미리준비해온 발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이 읽어내려가는 발제자의 모습. 더구나 발제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없이 발제자 '얼굴세워주기'식의 칭찬을 위한 칭찬이 난무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발제에 대한 논평은 뒷전인채 그동안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평생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가를 하소연이라도 하듯 한 많은(?) 인생을 얘기하느라 한정된 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여서 바닥수준인 불교계 '토론문화'을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불교가 미래사회를 주도하자면 많은 연구 노력이 선결되야 한다는게 불교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그러자면 우선 불교계내에 성숙된 토론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의견교환과 정보교류가 빈틈없는 실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필선 기자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에 설립되어 불교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前 불교전통의식교육원)』에서는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 유산인 범패와 승무 요잡및 작법등 불교의식의 전통의 맥을 우리 후손에게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자 불교전통의식에 뜻이 있는 스님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합장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교육과정	예경의식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제
연 구 과 정	요잡,작법,안차비 등	10명	1년제

2. 응시자격 (다음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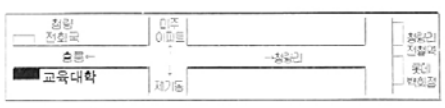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교육시간 : 주5회 (월~금)

□접수일자 : 1996년 8월 26일 ~ 9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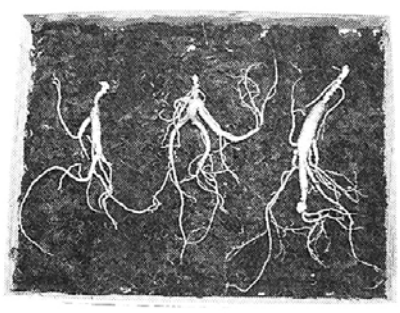
▼ 약 도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험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겠습니다.

■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산지확인가능)

장뇌산삼의 효능

· 산삼과 더불어서 신비한 원력을 주는 것으로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의보감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신장질환, 뇌졸증, 당뇨, 간장질환, 저고혈압, 신경쇄약, 빈혈, 자궁질환, 강정효과, 심혈관기능부전, 소화불량, 종양등에 뚜렸한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 특전 :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알선해 드립니다.

◐ 별도상담
· 자연산삼,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봉삼문의
· 상황버섯 문의
· VIP단체선물 환영

※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현불뉴스

사적지정 사지 27곳

금년 8월말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사지는 모두 27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문화재관리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적지는 총 3백93중 5건이 해제된 3백88건이며, 이중 사지는 황룡사지(사적 제6호)와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등 모두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적 및 명승지로는 경주 불국사 경내(제1호)와 속리산 법주사(제4호) 두 곳으로 나타났다.

사찰 16곳 환경위기

조계종 문화사회부가 지난 122회 임시종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환경 피해사찰이 16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봉영사 선암사 범어사(아파트 건설) 천황사 신흥사(케이블카 건설) 대비사 화계사(도로확장 및 터널건설) 심복사(건축폐자재처리장) 관룩사(온천개발) 정암사(위락센터 개발) 연미사(주유소 신축) 백담사 선운사(휴양지 조성공사) 백련사 안국사(유니버시아드 대회장 건설) 봉은사(무역협회 고층건물 신축)이다.

'낙동강 공동체' 참가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이상대)와 낙동강공동체모임(대표 김상희)은 6일부터 21일까지 16일동안 낙동강 525㎞ 36개 도시 마을 현장을 답사하는 '낙동강공동체 운동'을 펼친다.

부산 대불련 정기총회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이성헌)는 지난 2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18개지회 1백25명이 참석한 가운데 32년차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비하 발언 '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원(서울 종로)이 지난 8월11일 CATV 기독교방송에서 "중이 떠난 다음에 모두 (사찰에)몰려들어가 중이 다시 못오게 만들었다"는 등 불교를 비하하는 강의로 물의를 빚고있다.

이의원은 CATV 기독교방송 '명강의 스페셜'에 출연해 '어머니의 기도'라는 강연을 통해 마치 사찰이 혐오시설처럼 비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사부는 임시종회에서 "진위를 확인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본사 1복지시설' 건의

불교복지전문가들 조계종에

8개 교구만 운영… 효율적 자비실천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워크숍에 참석한 불교복지전문가들이 '1본사 1복지시설운영'을 골자로한 건의문을 채택,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해 불교복지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본사 1복지시설운영' 안은 국민복지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복지시설을 갖춘 곳은 단 8곳뿐이다.

조계사의 낙산어린이집, 신흥사의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반야어린이집 반야유치원, 법주사의 성림유아원, 불국사의 불국사유치원, 통도사의 통도사유치원·유아원 자비원, 송광사의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관음사의 제주양로원, 봉선사의 연꽃유치원이 그곳이다.

특히 이같은 복지시설운영현황은 불교의 자존심으로 자리해온 경상남북도 지역 본사급에서는 통도사 불국사만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뿐 전무한 실정어서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불교복지전문가들의 '1본사 1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주장은 지역포교의 전기마련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본사들은 지역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본사마다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포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2일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해 '1본사 1복지시설운영'체제 구축은 교단과 본사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각현스님은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종책적 접근과 행정적 프로그램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유네스코 유산협약 준수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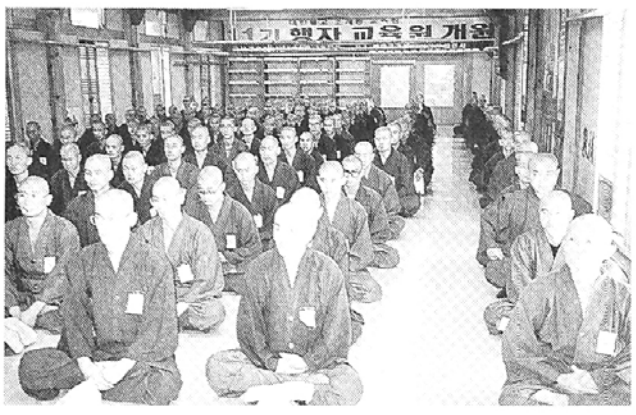
해인총림대책위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시민한마당 개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성법)는 지난 1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해인총림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공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인접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을 절하시키는 작태"라고 지적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권고에 근거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절대 건설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협약에는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취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깊은 쟁기질, 배수와 관개작업 등을 문화. 자연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유산은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해인총림대책위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덕곡면·고령군 대책위 등은 지난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해인골프장 백지화촉구를 위한 시민한마당을 벌였다.



◇ 조계종은 지난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제11기 행자 교육원 개원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서는 남행자 1백25명과 여행자 94명등 총 2백19명이 입방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아셈건물 저지 결의안 채택

조계종 122회 종회 서옹스님 고불총림 초대방장 추대

조계종 제122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종법 제·개정안을 심의하는등 20여개의 종단현안문제를 처리하고 폐회됐다.

종무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사부는 "내년부터 전국 사찰에서 보호하고있는 결손아동과 노인들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는 "생수사업팀을 결성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있으며 9월말경 (가칭)불교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사찰의 경제경영부문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종회의원들은 정기종회를 앞두고 7개분과로 구성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총무원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고불총림 초대방장에 서옹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해인사를 기초선원중심도량으로 선정했다.

중앙신도회 구성에 관해 종회의원들은 집행부와 준비위원회의 무능을 질타하고 빠른시일내에 중앙신도회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종회의원들은 봉은사가 청원한 '무역협회고층건물신축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역협회의 고층건물건립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총림설치법 종헌위배' 심판 청구

현봉·명진·종광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현봉 명진 종광스님은 지난 3일 법규위원회에 '총림설치법이 종헌에 위배된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종회 선원직 대표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림설치법은 제1조 근거규정이 종헌과 다른 근거불명의 종법이다"며 종헌위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총림설치법 제13조에서 방장이 주지를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 것은 종헌에서 이판과 사판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위헌판결를 받아 조속히 총림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총림설치법은 1967년 해인사 총림설치에 따라 제정되고 69년 개정된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6월 백양사가 5번째 총림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범어사를 비롯 본사급 사찰이 총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13일 정각회·16일 새연등회·내달 5일 청불회

조계사서 정치인법회 잇달아

불교계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달과 다음달에 정당과 국회의원 청와대직원들의 법회가 잇따라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13일 오후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단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부회장은 하순봉(신한국) 박상규(국민회의) 구천서(자민련)의원이다.

국민회의의 새연등회(회장 박상규)는 16일 오후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김대중총재도 참석할 예정이다. 새연등회측은 "조계사가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곳이고, 앞으로 불교계와 같이 호흡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계사로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불자직원들의 모임인 청불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도 다음달 5일 조계사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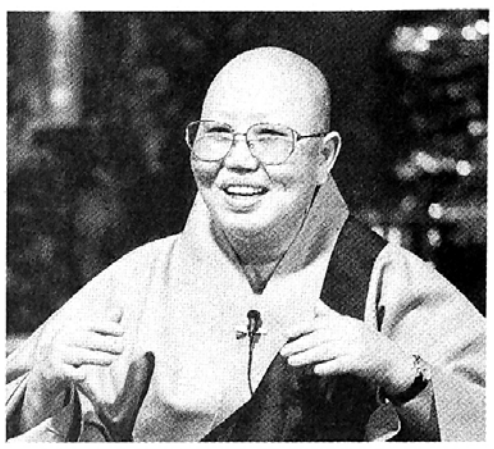
제주운전불자회 8월24일 창립

50여명 "불심으로 교통안전·건전관광 앞장"

제주불자운전기자회(회장 고승학)가 지난 8월24일 제주 고관사에서 창립됐다.

개인 영업용택시, 일반버스 및 관광전세버스 운전불자 50여명이 중심이된 제주불자운전기자회는 서울 BBS교통통신원 서울개인택시기사포교회 대구개인택시불교정법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대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에 이어 창립된 것으로 제주불교 홍포는 물론, 교통사고율 1위 불친절한 관광안내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부조리의 오명을 씻어내는데 앞장선다는 입장을 표방하고있어 도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불자운전기사회(064-51-0108)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관사 법화사 등 전통사찰 참배코스를 안내, 제주불교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불자들에게는 50%의 할인혜택과 기념사진을 선물, 불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원을 1백8명까지 모집해 불교단체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대행스님은 한마음선원 개원 23년만에 갖는 첫 서울대법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법어를 설한다.

대행스님 첫 서울대법회

9월15일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한마음 인생에는 苦가 없다"

현대사회는 과연 무엇을 향해야하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은 어떻게 꿈을 키워가야 하는가.

이같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들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가 오는 9월15일 오후2시 잠실 올림픽공원안 체조경기장에서 한마음선원 주최로 열린다.

조계종총무원 포교원 문체부 서울시 전국비구니회 군불교진흥회 현대불교 불교방송 불교TV 공동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날 법회는 한마음선원 개원 23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갖는 대법회이다. 부산 대구 음성 제주 광주 온양 울산 등 13개의 국내 지원과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8곳의 지원 등 한마음선원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만 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새롭게 열리는 대중포교 생활불교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청소년의 해'로 선포한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단체 파라미타 소속 청소년 1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1부 설법 2부 특별공연 국내외 2만신도 참석

이날 법회는 1부 청소년과 불자들을 위한 대행스님의 설법에 이어 2부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범훈)의 공연과 한마음선원 연합합창단과의 협연 등 특별공연으로 진행된다.

대행스님은 이날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흔히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일깨워줄 예정이다. 2부 특별공연은 대행스님 작시에 박범훈씨가 곡을 붙인 '정신발전의 길'이 국악관현악으로 초연되며 사물놀이 공연 국악인 김성녀씨의 창등 격조 높은 연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오후1시20분 부터 오후2시까지 비디오상영 어린이 풍물패 공연도 마련된다. 이날 주최측은 성내 전철역(2호선) 앞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란〉

마음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세요

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공 당신땜이 할 수 있어' 하고 굳게 믿으면서 인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고 실천해보아야 맛을 알게 됩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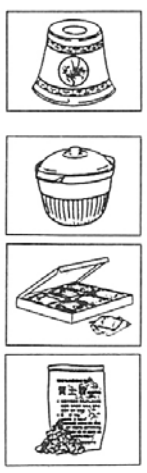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히철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①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지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불때면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磁體)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뻗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③ 약쑥 :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④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⑤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방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⑥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장,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상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과괴의 위협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여성질환에 좋은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빈血,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성사가 신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군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찜질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 (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중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 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 의정부: (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 803-0108 연제구 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 474-28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52)75-6733

경북지역 경주 : (0561)772-3255 구미·군위 : (0578)83-5308 포항 : (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 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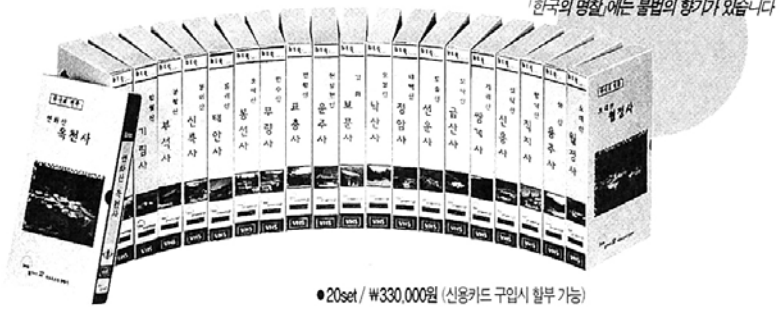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한국의 명찰」 시리즈 20선!
「한국의 명찰」에는 불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 20set / ₩330,000원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불심있는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